

통(通)/내러포(Narraphor) 설교가 청중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하나교회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 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문병재

드루 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16년 5월

Copyright © 2016 Byungjae Moon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A Study of the Influence of Tong/Narraphor Preaching on Congregational Development: A Case Study of Hana Church

Byungjae Moon

Hana Church, Seoul

This project is to explore the influences of preaching on church growth with focus on “Tong/Narraphor Sermon” suggested by Byoungho Zoh and Leonard Sweet. It is a case study on Hana Church where I am currently serving. Tong Bible Methodology that is developed by Zoh has rendering a great deal of impact on the patterns of Bible reading and understanding with its wholesome and balanced view on learning the Bible. Narraphor is a jargon that Sweet coined himself to vivify current cultural currencies, narrative and metaphor in terms of the ways of communication and interestingly enough they were the same cases in the Bible.

Church growth has been one of the main interests in my twenty five years of ministry. When I was invited by Hana church, this church had had six former pastors served average two years each for twelve years. The church went through tough moments and the congregation had been torn down badly. My ministry has to be the ministry of healing by encouraging them to gather themselves up again. In so doing, I found myself, sermon was the most powerful and effective channel that brought the grace of Jesus to the wounded hearts.

In this project, the writer intends to find a relationship between preaching and church growth presenting the evidence that Hana church has embodied along with

sermons delivered and mediated in Tong Bible methodology and Narraphor experiences. And this study suggests how Tong/Narraphor sermon could leave a meaningful impact on the hearts of the congregation that would lead them to be witnesses of Jesus. This study found that sermon could make a difference in the life of the congregation. In particular, the transformation, and empowerment, and vision sharing of the community were the driving force of church growth. Through this project, one can assure that Tong/Narraphor sermon would help church to growth in numbers as well as spirit.

국문초록

통/내러포설교(通 Tong/ Narraphor Preaching)가 청중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하나교회를 중심으로

문병재

하나교회, 서울

본 논문에서는 교회의 청중에게 설교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먼저 레너드 스윗의 내러포와 조병호의 통(通)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설교의 유형과 청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내러포와 통을 합하여 새로운 설교의 유형인 통(通)/내러포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를 제시하고 이 설교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하나교회는 본 연구자가 부임할 때까지 13년간 6명의 담임목사가 평균 2년을 주기로 교체되었던, 마음의 상처로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이 겨우 모인 교회였다. 이런 상황에 부임한 필자가 통(通)/내러포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에 주력하면서 교회가 성장하였다. 미조직교회에서 조직교회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변화의 시도가 부결되면서 정체과정을 겪었으나 심기일전하여 다시 1년간 통(通)/내러포설교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이 통/내러포설교가 청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하나교회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통(通)/내러포설교의 필요성을 제시하려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교회성장과 설교의 상관관계를 찾아보고 본인이 제시하려는 통(通)/내러포설교의 방법과 필자가 시무하는 하나교회를 중심으로 실행된 통(通)/내러포설교를 살펴보고 논문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제 2장에서는 먼저 Leonard Sweet이 사용한 내러포(Narraphor)가 무슨 뜻
인지를 설명하였다. 내러포(narraphor)는 이야기(narrative)와 은유(metaphor)의 합
성어로 Leonard Sweet이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내러포는 은유를 담은 이야기 또는
이야기를 담은 은유로 의미의 폭과 깊이의 한계를 제거하는 창조적 표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병호의 통(通)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 두 개념 즉, 내러포
와 통(通)의 연관관계를 설명하였다.

제 3장에서는 설교의 유형과 설교와 청중 그리고 설교와 교회성장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시대마다 선호되던 설교의 유형들이 있었지만, 청중과 의사소통방식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한다. 오늘날은 그 어느 시대보다 급격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
고 있고, 우리는 메시지 전달의 유형이 다양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에
통(通)/내러포설교를 하며 교회가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설교의 필요성을 제시
하였다.

제 4장은 하나교회의 상황을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설교가 지식으로만
전달되지 않고, 기존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실천동기가 생기는데 대해 설교자와
회중과 교회공동체의 변화, 동기부여, 비전 등 3개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리고 통(通)/내러포설교의 유익한 면과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통(通)/내러포설교는 이미지시대의 청중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설교의 핵심인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제시한다

목 차

감사의 글	x
표 목차	ix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II. 통(通)/내러포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	5
내러포설교(Narraphor Preaching)	5
통(通 Tong)	31
III. 통(通)/내러포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의 필요성	43
설교의 유형	43
설교와 청중	46
통(通)/내러포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의 필요성	52
IV. 프로젝트 실행	55
교회의 상황	55
실행절차	58
실행과 분석	59
실행에 대한 평가	71
V. 결론	72
요약 및 평가	72
제언	75
부록	77

참고 문헌 109

표 목차

<표 1> 공시적 관점과 통시적 관점의 동시활용	36
<표 2> 응답자의 인적사항	60
<표 3> 설교에 대한 이해도	63
<표 4> 설교에 대한 만족도	63
<표 5> 설교를 듣는 청중의 태도가 설교에 미치는 영향	65
<표 6> 설교를 들을 때의 장애요소	65
<표 7> 설교가 삶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응답	66
<표 8> 설교가 무엇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응답	67
<표 9> 설교를 듣고 난 후 청중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조사	68
<표 10> 설교를 듣는 청중의 비전, 공동체 의식과 사명에 대한 조사	69
<표 11> 설교가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	70
<표 12> 설교가 중요한 이유	70
<표 13> 통과 내러포	72

감사의 글

사순절기간에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구주 예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병호교수님과 김영래교수님 그리고 레너드 스윗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의 고백과 같이 만삭되어 나지 못한 것처럼 이 부족한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미하게 지도해주신 조병호교수님과 김영래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 논문에 학문적으로 진일보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두 분 교수님의 지도에 힘입은 것입니다.

이 논문을 쓸 수 있는 하나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일에 도움을 준 전민경 간사님, 그리고 논문에 요긴한 작업을 해준 김승진 전도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을 오가며 같이 공부하고 동고동락한 동기목사님들과의 아름다운 교제에 감사합니다.

이 목회학 박사 과정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도움을 준 김문년목사와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알려준 친구 최윤석목사와 홍순범목사, 김창환목사, 전우상목사의 아낌없는 격려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늘 기도해주시는 양가의 부모님께 감사 드립니다. 무한한 이해와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아내 전경옥과 아버지를 응원해준 딸 하영이와 아들 하빈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6년 사순절(四旬節)

문병재

제 I 장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설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¹

사도행전 2: 36-42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3천명이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다. 이어지는 3장과 4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또 한 번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한다. 이 때는 5천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²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게 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사도행전의 내용은 설교자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만든다.

¹ 사도행전 2: 36-42, 레너드 스윗은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본다. 장과 절로 나누는 영향력이 지나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이를 '구절병'이라고 표현한다. 본 연구는 스윗의 견해를 따라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성경은 전체적인 장과 구절만 표시하고 구체적인 구절의 표기는 생략한다.

² 사도행전 2:4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문성모는 “설교는 말장난이 아니다. 설교는 웅변도 아니다. 목회를 위한 설교의 목적은 영혼 구원과 교회 성장에 있다. 당신의 설교를 듣고 죽어가는 영혼이 몇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 한 인간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고백하고 무릎 꿇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말장난 같은 설교로 가능하지 않다.”³ 라고 말한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었다. 유명·무명의 설교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청중들은 설교를 듣고 영향을 받았다. 설교의 역사에 있어 복음의 내용은 불변하나 시대의 요구에 따라 설교의 방법은 청중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변해왔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설교자와 청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하다.

오늘날 복음전달자는 효과적인 복음전달방법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복음의 수신자에 대한 연구를 하다보면 그들은 텍스트와 컨텍스트에 대한 연구를 한다. 이런 관점을 통해 이 천년 전에 발생한 예수님의 복음사건을 오늘 이 시대에 적합한 메시지로 전하고 싶어한다. 복음사건을 오늘의 상황에 의미를 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로 연결시키고 싶어한다. 복음전달자는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과 문화, 언어를 오늘의 언어로 전달하는, 복음전달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⁴

현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급격한 변화하는 중이고, 우리는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현대는 인터넷과 영상매체의 발달로 급격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가 있어났다. 이 시대는 문자의 시대에서 인터넷 검색엔진인 구글(Google)로 대표되는 이미지의 시대가 되었다.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인터넷망(World Wide Web)으로 연결되어 있고, 웹페이지에는 글(문자)과 그림과 정보와 동영상의 한 자리에 공존한다. 2007년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기능을 접목시킨 스마트폰(smartphone)⁵의 등장으로 이제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으로 커뮤니

³ 문성모, *한국교회 설교자 33인에게 배우는 설교* (서울: 두란노서원, 2012), 26.

⁴ 한중수, *네러티브 설교의 힘* (서울: 윌리암캐리, 2010), 137

⁵ 2007년 1월 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맥월드 2007에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설교의 핵심은 복음인데 이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청중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시대에 적합한 메시지 전달 유형이 필요하다. 신성옥은 이렇게 언급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전해져야 하며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는 설교자라면, 설교에도 고도의 전략과 기법이 필요함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특히 21세기, 영상에 익숙한 세대에게 공감을 이끌어내는 설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설교자들이 흔히 보이는 첫 번째 오류는 설교를 단순한 방법론이나 기법의 문제로만 간주하는 것이다. 이는 설교에 미치는 성령의 결정적인 역할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다. 두 번째 오류는 설교를 성령의 문제로만 간주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설교자들은 설교의 전략과 방법의 결정적인 역할을 간과한다.

성경이라는 쇠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것으로 날차로운 무기를 만드는 것은 말씀의 대장장이인 설교자의 역할이다. 우리 대장장이들은 자신의 인격과 지식과 정보와 설득의 기술 등을 잘 두들기고, 버리고 갈아서 위대한 보검을 만들어 내야 한다. 물론 동시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설교자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⁶

본 논문에서는 이 시대에 적합한 설교의 유형을 탐색하고 하나의 새로운 설교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드루대학교의 석좌교수로서 미래학자이며 성서기호학자인 레너드 스윗이 제시하는 새로운 설교의 방법인 내려포설교(Narraphor Preaching)와 한국의 성경통독 운동을 이끌어가는 조병호의 통(通 Tong)을 살펴보고 이 둘을 합하여 통(通)/내러포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라고 이름을 붙였다.

본 논문은 여기에서 제시하는 설교의 유형이 현시대에 알맞는 유형이라는 인식이라도 가지게 해 준다면 의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연구의 방법과 범위

스마트폰인 아이폰(iPhone)을 발표했다.

⁶ 신성옥, 목사님, 설교 최고예요!(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1), 10-11.

이상의 목적을 위해 본 논문은 통(通)/내러포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를 실제 목회의 현장에서 1년간 적용한 후, 청중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한 조사와 분석, 평가를 하는 현장 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 그리고 연구의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2장에서는 첫째, 내러포(Narraphor)의 개념을 정의하고 구성요소인 성서기호학과 에픽(EPIC)에 대해서 그리고 내러포가 어떻게 설교에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고 실제 설교문을 예시로 수록하였다. 둘째, 통(通 Tong)의 개념을 정의하고 내러포와 통의 연관관계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설교의 유형들과 설교와 청중의 관계를 살펴보고 통(通)/내러포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4장은 프로젝트의 실행과정이다. 먼저 이 설교를 듣는 청중과 그들이 속한 교회의 상황을 기술하였다. 이 연구는 본 연구자가 시무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영등포노회 하나교회의 청중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간은 2015년 1월~12월까지 1년 52주이며, 1년의 기간이 끝난 후 이 설교가 청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20대에서 70대까지 각 연령층과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은퇴집사, 성가대, 교사, 구역장, 남·여선교회장, 청년회장등 각 직분자들을 골고루 표본대상으로 삼아 편향성이 없고 전교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하나교회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성을 가진다.

제 II 장

통(通)/내러포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

내러포설교(Narraphor Preaching)

내러포(narraphor)의 개념 정의

설교전달에 있어서 이야기(narrative)와 은유(metaphor)는 내용의 옷을 입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은 이 두 요소를 합성하여 내러포 (narraphor)라는 개념을 소개했다.¹ 사실 이제까지 대부분 설교자들은 단어와 그 개념을 설명하는데 집중해왔다. 즉 마치 설교가 특정한 개념을 신학화하여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스위트는 지금 우리는 단어가 아닌 이미지와 은유, 그리고 상징과 이야기로 자신을 전달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를 은유적 이야기 위에 건설한다.”²고 말했다. 이야기와 은유는 서로 다른 문학의 표현양식이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스위트는 “이야기는 곧 윤색하고 수를 놓은 은유다”³라고 했고, 이에 대하여 김영래는 “내러포는 이야기 속에 이미지와 은유를 포함시켜 청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상황에서 경험하는

¹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성경교수방법으로서의 내러포 탐구,” 84 *신학과 세계* (2015), 527.

² Ibid.

³ Leonard Sweet, *Giving Blood*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4), 37.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성경교수방법으로서의 내러포 탐구,” 528 에서 재인용.

것들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그리고 다층적으로 인식하고 느끼게 하는 수사양식이다.”⁴라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비유는 이야기와 은유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훌륭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열 처녀의 비유⁵에서 보면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이야기를 통해 천국을 준비하는 신자의 자세를 알려주는 메시지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신랑과 신부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시켜주는 최상의 은유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다. 그래서 스윗은 “예수님의 비유(parable)는 내러포(narraphor) 그 자체”라고 했던 것이다.⁶

또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못 사람은 그의 교훈에 놀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고 했다.⁷ 그 이유를 스윗은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이 그토록 영향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성경의 문장이나 단어 혹은 구절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기반으로 잘 설계된 설교였기 때문이 아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이야기꾼이었으며 그의 설교와 가르침은 은유와 비유 그리고 몸짓으로 가득 차 있었다.”⁸고 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야기가 권위의 통로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야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과 깨달음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깊은 감동과 깨달음은 그 이야기를 전달한 사람에게 권위와 존경을 불러 일으킨다. 스윗은 “성경의 66권은 모두 함께 엮여서

⁴ Ibid.

⁵ 마태복음 25:1-13.

⁶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528. “비유는 문자 그대로 ‘……와 나란히, ……와 함께, ……와 견주어’(alongside of)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토착 이미지, 보고(reports), 경험과 함께 구성하셨다.”

⁷ 마가복음 1:21-22.

⁸ Sweet, *Giving Blood*, 21-34.

하나의 스토리라인을 형성한다.”⁹고 본다.

신약 27권은 한편으로 구약성서의 주석이라고 볼 수 있다. 흔히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설명은 충분하지 못하다. 성경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다. 성경적 기독교의 최종산문은 그 어떤 다른 요소도 아닌 예수라는 인물이다. 신성과 인성이란 두 가지 본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선지자, 성직자, 왕 그리고 현자로서의 4가지 사역을 감당하시고 4개의 전기(4복음서를 통한)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다. 성경은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속과 속죄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건은 예수라는 인물과 그 이야기의 구성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¹⁰

성경의 장절(章節 Chapters and Verses of Bible)은 처음부터 구분되어 있던 것은 아니다.

영국의 켄터베리 대주교였던 랭튼(Langton, 1150년-1228년)은 라틴어 성경 불가타역(Vulgata) 구약을 장(章)으로 나누었다. 1207년 랭튼은 영국 성공회 교회인 켄터베리 대주교가 되었고 1228년 사망시까지 재임하였다. 랭튼은 켄터베리 대주교가 된후에 신약을 장으로 구분하였다.

프랑스의 궁정 인쇄 기술자인 스테파노스(Stephanus: 1503년-1559년)는 신약성경을 절로 구분하여 스위스 제네바에서 1551년에 출간했다. 이것이 성경을 절로 구분한 최초의 일이다. 신, 구약 전체에 장과 절이 붙여져 출간된 것은 1555년 스테파노스의 라틴어 불가타 성경이 처음이다. 오늘날에 사용하는 성경은 1560년 제네바에서 발간한 불가타 성경의 장 절을 받아들이고 있다.¹¹

장과 절이 구분된 성경을 사용하다 보니 이것이 우리의 시야를 가려 전체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인데 토막으로 나누어진 부분만을 보게 했다. 스윗은 이것을 “구절병”¹²이라고 부른다. 그는 지금이라도 장과 절의 구분에서 벗어나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아야만 성경이 기록된 원래의 뜻을

⁹ Leonard Sweet and Frank Viola, *Jesus: A Theography*, (Thomas Nelson Publishers. 2012), ix-x.

¹⁰ Ibid.

¹¹ 장동학, 창세기학교 교재 17, 하늘 꿈 연동교회, 2013년 4월 3일.

¹² Leonard Sweet, “Let’s Tong Scriptura” 세미나, 2014년 1월 16일.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¹³ 이에 본 논문은 성경구절을 인용할 때 스윗의 견해를 따라 전체적인 성경의 장과 절은 표기하지만 구체적인 표기는 하지 않았다.

최고의 이야기꾼인 예수님은 또한 은유의 대가였다. 스윗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은유들은 특출 났다고 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은유들은 사람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생명과 삶에 대한 개념을 비틀고 돌려서 전혀 새로운 진리로 그들을 인도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스윗은 예수님께서 은유를 통해서 누군가의 의견이나 생각을 바꿀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세계관까지도 통째로 바꾸실 수 있었다고 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전한 비유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러포의 사용 목적이 되었던 것이다.¹⁴

내러포 설교(Narraphor Preaching)의 구성요소

시대적으로 다양한 설교의 형식이 있었고, 그 시대마다 선호되었던 형식들이 있었다. 여기에는 설교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여 이해할 수 있고, 설교를 듣는 회중과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 스윗은 오늘날의 설교와 회중의 관계에 대하여 “오늘날의 설교 세팅에는 설교자와 참여자의 관계는 실종되었으며 오로지 설교자와 수동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설교 대상자만이 존재한다. 헌혈과 수혈의 관계처럼 피를 나누는 사람과 이를 받는 사람이 아닌, 피를 나누는 사람과 이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필요하다.”¹⁵고 했다.

때문에 스윗은 이야기 속에 이미지와 은유를 포함시켜 회중들의 현실상황과

¹³ Ibid.

¹⁴ Sweet, *Giving Blood*, 35-42.

¹⁵ Ibid., 22.

공감을 형성하는 기능을 가진 내려포 설교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 내려포 설교는 성서기호학과 경험-참여-이미지-연결(EPIC)이라는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성서기호학(Bible Semiotics)

이미지와 은유를 이해하려면 성서기호학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성경의 주제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되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하여 스윗은 ‘설교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부터 부활에 이르는 이야기를 다뤄야 하며 이를 듣는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에게 예수님의 내재하심을 속삭일 수 있어야 한다’¹⁶고 언급한다. 이처럼 이야기와 상징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 내기 위한 설교는 ‘기호학’을 기반한다. ‘기호학’이란 상징을 읽고 이를 해석하고 또 전달하는 것이다. 김운용은 이렇게 말한다.

언어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수사학은 현대에 들어와서는 다양한 기호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메시지에 사용된 기호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호학(semiotics)이 발전하게 된다. . . . 사람들은 언어 문자를 포함한 상징(symbol)과 아이콘(icon), 지표(index)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의미하는 것과 생각을 읽어 내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호 의사소통을 이루게 된다. 여기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를 표현하거나 타인의 의도를 알아내는 행위를 의미작용이라고 하는데, 기호를 통해 서로 메시지를 주고 받고, 그 의미를 알아내는 상호작용 행위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 . . . 기호학은 언어학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현대 커뮤니케이션에서 아주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설교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 된다. . . . 왜냐하면 설교는 오늘의 문화 속에서 형성되고 기호의 체계를 가지고 행해지는 수사학적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이다.¹⁷

¹⁶ Ibid.

¹⁷ 김운용, *현대설교코칭*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2), 333-335.

이런 기호학의 바탕에서 성서(성경)를 보는 것이 ‘성서기호학’이다.

‘성서기호학’에 의한 ‘기호학적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고 계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 현상이나 기호들을 읽어내어 이러한 상징들을 예수님의 이야기와 더불어 사람들의 삶과 연결시켜 주는 작업이다. 김운용은 스토리와 이미지 등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의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한다.¹⁸ 박호용은 요한복음을 주석하면서 생존이 위협당하는 목시문학적 위기상황의 산물로써 요한복음 전체가 거대한 암호상징(상징코드)으로 되어있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¹⁹

지금까지의 설교방법과 달리 기호학적 설교방법은 설교의 메시지 자체를 신성한 성육신의 행위로 인식한다. 지금까지의 설교가 성경의 문자들 즉, 단어와 구절을 연구하고 해석하여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였다면, 성서 기호학적 설교는 성경(성서)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이미지와 이야기를 찾아내어 전달하는 것이다. 스윗은 이렇게 언급한다. 성서 기호학은 우리로 하여금 원래의 성서가 전해지던 방식(예수님의 방식)과 목적을 회복하여 이미지와 이야기 그리고 관계성 안으로 우리를 회복시킨다. 이러한 방식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달하실 때 가장 즐겨 사용하신 방법이다.²⁰

그렇다면 성서기호학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스윗은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상에 매어 지붕위에서 달아내린 이야기를 성서기호학에서

¹⁸ Ibid., 22-28.

¹⁹ 박호용, *요한복음주석I(해석편)*(서울: 도서출판 예사빠진, 2015), 312-401

²⁰ Ibid., 29-31.

‘중보기도’로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탄생이야기를 예로 들어 성서기호학을 설명했다.²¹

예수님의 탄생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이야기는 가장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의 이야기를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학교에서 이야기할 때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미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살아있지 않다면 누가 문제인가요? 성경이 문제인가요 우리가 문제인가요? 성경을 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미 살아 있는 말씀을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기체라고 합니다. 어느 문제가 있다면 유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아니라 몸 전체가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전체를 말할 때 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상관 없는 이야기로 말해서는 안됩니다.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말합니다. 세포 하나도 몸 전체가 축소판으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는 성경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66 권의 책으로 배워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나누고 찢는 작업을 했습니다. 어느 것을 분리시키면 어느 것을 죽이는 일입니다. 성경을 분리시키면서 성경을 죽이는 일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능력을 빼앗고 능력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엮어서 연결 짓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베들레헴에 들어가면 무슨 말을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배경이야기와 이미지가 있습니다. 왜 하필 베들레헴이었을까?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위대한 왕입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에 후광이 있듯이 베들레헴에게서부터 누가 어떻게 누가 나오는지요? 메시아가 나옵니다. 베들레헴은 왕들의 동네입니다. 거기에는 꿈과 소망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부르기 만해도 성스러운 것입니다. 누구의 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 요셉입니다.

베들레헴은 요셉의 고향이었고 임신한 마리아가 남편과 함께 그곳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태어나셨

²¹ 아래 내용은 2014년 1월 16일 레너드 스윗 교수가 “Let’s Tong Scriptura” 세미나에서 강의한 내용을 녹취하여 그대로 정리한 것이다.

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나사렛은 고대로부터 무명의 지역이었습니다. 나사렛은 6에이커(7천평)정도의 작은 마을이고 40-50 가구가 사는 지극히 작은 동네였습니다.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동네였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명한 곳이고 나사렛은 형편없는 무명의 마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의 중요한 ‘기호(記號)’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렇게 서로 상반된 요소들이 하나로 만나고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항상 상반된 이야기가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항상 공존합니다. 이것을 아주 조화로운 차이라고 합니다.

창조성의 연구에서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것을 불러다가 충돌하게 만들고 섞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서로 충돌할 때 창조성이라는 것이 번쩍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수세기에 걸쳐서 창조성을 만들고 유지했는가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파라독스-paradox’입니다. 정통이 되려면 역설(逆說)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상반된 두 가지 요소가 함께 공존합니다. 우리는 성도이며 동시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죄인 여러분. 우리는 성스러우면서 죄인입니다. 상반된 것이 서로 충돌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라운드 사운드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상반된 것이 한 곳에서 만나서 새롭고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역설의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로고스의 로고를 하나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제한적이고 유한합니다. 우리는 무한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계십니다.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기호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수직적인 초월성과 수평적인 내재성이 함께 만나서 로고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단은 이 두 가지를 떼어 놓으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이 역설이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충돌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아주 선택된 마을,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천하고 낮은 마구간의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왕들이나 태어나는 궁궐이 아니라 요람이 아니라 벧짚을 깔고 태어나셨습니다. 첫 번째 말은 냄새는 아주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왕이나 말아야 하는 냄새를 맡으셨나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서 첫 번째로 맡으신 냄새는 결코 좋은 냄새가 아닙니다. 누가 와서 맞이했죠. 그 마을의 고관들이 와서 경배했나요? 목동이라는 아주 천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목동들은 몸의 냄새 때문에 유명합니다. - 냄새나는 목동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냄새가 납니다. 유대문화에서 아주 낮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태어나신 벧질에서는 냄새도 나고 벌레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벌레들도 처음 맞이한 것입니다. 그 목동들은 냄새 나는 것뿐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로도 유명합니다. 목동들은 사실을 약간 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반된 장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신뢰하신다면 신뢰라는 말을 강조하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정확하게 상반된 이야기를 발견됩니다.

이 가장 더럽고 냄새 나는 곳에 가장 좋은 향기를 가지고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반긴 것은 낮고 더러운 냄새 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주님을 반긴 것은 가장 높고 아름답고 귀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 문화의 가장 낮은 사람들과 이방인 가운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박사이고 높은 지위와 삶을 영위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놀랍고 커다란 의미를 만들어 내는 ‘기호(sign)’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곧 ‘이방인’ 들을 위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²²

‘성서기호학’에 의한 ‘기호학적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고 계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 현상이나 기호들을 읽어내어 이러한 상징들을 예수님의 이야기와 더불어 사람들의 삶과 연결시켜 주는 작업이다. 스윗은 스토리와 이미지 등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의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한다. 설교의 메시지 자체를 신성한 성육신의 행위로 인식하는 기호학적 설교방법은 마치 헌혈을 통하여 생명이 전달되는 것과 같다고

²² Leonard Sweet, *Let's Tong Scriptura* Seminar, 2014년 1월 16일 강의.

해서 스윗은 ‘피의 작업’ 이라고 언급한다.²³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몸의 상태를 잘 알 필요가 있다. 몸이 건강한지, 혹은 약한지, 무슨 증상들이 있는지 혹은 특이체질은 아닌지 몸 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설교자는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와 또한 성도들의 세세한 면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이야기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연결시켜줄 수 있는지 알아내고 적용시켜야 한다.

에픽(EPIC)²⁴

에픽(EPIC)²⁵은 스윗이 다음의 네 단어의 첫 글자를 조합한 말이다. 즉, 경험적(Experiential), 참여적(Participatory), 이미지적(Image Rich), 연결적(Connective)이 바로 그것이다.²⁶ 그러면 에픽적 내러포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첫째, 경험적(Experiential) 내러포이다. 사람들이 몸살감기에 걸리면 어릴 적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해 주시던 음식을 찾는다. 그 음식을 먹고 기운을 회복한다. 한국사람에게는 된장찌개와 같은 음식이고, 미국사람에게는 뜨거운 한 그릇의 닭고기 수프가 몸이 낫기 위해 먹는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중의 하나이다. 이에 착안하여 잭 캔필드와 빅터 한센(Jack Canfield and Mark Victor Hansen)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Chicken Soup For The Soul* 라는 책을 공동집필하였다. 그들은 이 책을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²³ Sweet, *Giving Blood*, 43-60.

²⁴ Leonard I. Sweet, *Postmodern Pilgrims*, 김영래 역,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서울: 좋은 씨앗, 2002), 이 책의 전체 내용이 EPIC을 다루고 있다.

²⁵ Leonard Sweet, *The Gospel According to Starbrcks*, ‘Colorado: Waterbook Press, 2007).

²⁶ Sweet, *Giving Blood*, 43-57.

이 책 속의 이야기들이 그들의 할머니가 요리해주는 것처럼 진정과 평안함을 제공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²⁷ 이 책은 육체가 아닌 영혼의 감기몸살을 앓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책으로 전세계적으로 2억부 이상 팔린 스테디셀러가 되었다.²⁸ 과거의 경험에 의해 익숙한 음식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경험을 토대로 무언가를 구입한다면 그들이 구입하는 것은 그 경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다른 말로 아이콘(icon/상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내러포(Narraphor)이다.²⁹ 스위트는 “훌륭한 내러포는 사람들의 기억을 도우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과 같은 감각적 아이콘의 역할을 한다.”³⁰고 한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감각적 경험이란 오감을 통한 육체적 경험을 뜻한다. 성경은 시편 34편에서 이와 같이 말한다.³¹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한다.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래는 “이와 같이 이미지와 은유를 기반으로 하는 내러포는 감각적 경험을 일으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러포는 감각적 이미지와 은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²⁷ <http://www.chickensoup.com/about/history>. (2016년 2월 2일 접속).

²⁸ <http://www.chickensoup.com/about/facts-and-figures>. (2016년 2월 2일 접속).

²⁹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532.

³⁰ Sweet, *Giving Blood*, 48.

³¹ 시편 34:6~10.

한다.”³² 고 한다.

둘째, 참여적(Participatory) 내러포이다. 확실한 참여는 새로운 경험을 만들거나 기존의 경험을 수정하는 능력이 있다. 스위트는 “참여는 경험의 중재자이며 내러포에게 생기를 주는 요소이다.”³³라고 했다. 이야기와 은유로 공유된 경험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러포의 참여자가 되게 한다. 이 때 개인은 단순히 타인의 경험에 대한 청취를 넘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개입시켜 상황을 표출된 상태로 관찰하고, 상황을 적절히 설명하는 가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성경을 보면 어떤 율법교사와 예수님이 즉문즉답(卽問卽答)을 하는 장면에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온다.³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냐 기록되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고 반문하신다. 율법교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은 그 대답이 옳으니 이를 행하면 살리라고 대답하신다. 다시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신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누가복음 10:25~37)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냐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³²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532.

³³ Sweet, *Giving Blood*, 50.

³⁴ 누가복음 10:25-37.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간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다. 율법교사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실천하지 못한 것을 언급하신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이야기가 이어진다. 예수님은 이야기의 마지막에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이야기 속으로 율법교사를 끌어들인다.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하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를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여 참여를 독려한 것처럼 논리적 관조가 아닌 경험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로 참여적 내러포의 역할인 것이다.

그래서 스윗은 “참여는 . . . 회중이 본문 속에 역동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가추적(transductive or transincarnation) 방법’ 이라 부르는 것의 본질이다.”³⁵ 라고 말한다.

셋째, 이미지적(Image Rich) 내러포이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1741년 뉴 잉글랜드에서 설교한 “진노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은 아마도 미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알려지고 또 기억되는 설교 중 하나일 것이다. 왜 이와 같은 설교가 사람들에게 계속되어 기억되는 것일까?

³⁵ Sweet, *Giving Blood*, 48.

조지 M. 마즈던은 에드워즈의 설교인 “진노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 설교에서 특별한 것은 교리자체가 아니라 에드워즈가 청중의 가슴을 파고들기 위해 사용한 비유적 표현들이다. 이 대각성 설교에서 그는 미사여구로 꾸미거나 부연설명을 하기 위해 틈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흉악한 죄인들을 겨냥한 중심 주제에 모든 초점을 맞춘다. 이전의 설교들에서도 종종 그는 강력한 이미지들을 사용했다. 하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은 더 남다르다. 왜냐하면 웨드워즈가 참으로 많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청중이 도무지 빠져 나갈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³⁶

설교의 구성이나 내용 자체는 금세 잊혀지기 쉽다. 하지만 이 설교가 주는 지옥의 강렬한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깊숙이 각인되어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설교 중 하나로 남게 되었다. ‘Literacy’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문해력, 文解力)이라면 ‘Imagery’는 이미지와 이야기를 읽고 또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Imagery’ 때문에 내러포(Narraphor)는 더 효과적이며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다. 풍성한 이미지로 이루어진 설교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내러포(Narraphor)의 구체적인 성육신 능력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풍성한 이미지 설교에 능한 분이셨다.³⁷

넷째, 연결적(Connective)내러포이다. 인간은 관계적(사회적) 동물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관계적 세상이며 오늘날의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관계를 원한다. Bronnie Ware라는 한 호주 아가씨가 은행에서 일하다가 영국여행을 떠났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간병인을 하다가 호주로 돌아와서도 작곡공부와 함께 이 일을 계속하면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똑같은 이야기

³⁶ George M. Marsden, *Jonathan Edwards: A Life*, 조나단 에드워즈 평전, 한동수 역(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6), 331.

³⁷ Sweet, *Giving Blood*, 43-57.

들이 반복되는 것을 깨닫고 이를 정리하여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다섯 가지’

*The Top Five Regrets of the Dying*란 제목의 책을 펴냈다.³⁸ 그리곤 바로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2가지를 살펴본다.

2.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다. - 대신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야 했다.

돈벌이에 매달려 직장에 파묻혀 사는 동안 자식의 어린 시절, 부인과의 따뜻한 가정생활을 놓친 것을 후회했다. 여성들도 일부 이 같은 후회를 했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만 했던 가장들은 대부분 쳇바퀴 돌듯 직장 생활에만 매진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컸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 들어간다. 누구보다 일을 잘 해야 되고, 누구보다 앞서 승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되면 가정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가정은 물론 친척도, 친구도, 이웃도 가까이할 겨를이 없게 된다. 그래서 남이 말하는 출세는 하지만 때로는 가정도 잃고, 친구도 잃고, 이웃도 잃고, 자신의 건강마저 잃고 삶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 속담에 “마지막 웃는 자가 승리자.”라고 했다.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웃을 수 없게 되어 후회하게 된다.

4. 친구들과 연락하며 살았어야 했다 - 다들 죽기 전 얘기하더라고 한다. "친구 ○○를 한번 봤으면.."

오래된 친구들과 좀 더 가깝게 지낼걸…… 사람들은 자신들이 삶을 마감하기 고작 몇 주 전에야 ‘오랜 친구’들의 소중함을 깨닫곤 했다. 친구들이 보고 싶어 수소문을 해보기도 하지만, 정작 그 때쯤엔 자신의 수중에 친구들의 연락처조차 없다는 점을 깨닫고는 좌절했다. 친구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다. 넓은 의미로 이웃을 멀리하며 자기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살았다는 의미다. 이해관계에서 다소 손해가 된다면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³⁹

사람들은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문화와 공동체 안의 관계를 애타게 갈구하고 있는 반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은 단지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쳐있다. 이제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관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 아래로 정보가 단순 전달되는 기존의 구조는 절대로

³⁸ 중앙일보, 조인스 블로그, <http://blog.joins.com> (2016년 2월 2일 접속).

³⁹ Ibid.

소셜 네트워킹을 원하는 정서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신학 역시 관계 중심적 신학이었다.⁴⁰

어떠한 의미에서 에픽(EPIC) 설교란 새로운 형태의 야외설교라고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상당한 시간을 당대의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야외에서 사역하는데 할애하셨다. 예수님께서선 야외 현장에서 당시의 상황과 대상을 고려하여 성경의 말씀을 전혀 새로운 형태로 전달하셨다. 예수님의 설교는 특별히 지정된 신성한 장소나 위치에 제한 받지 않고 갈릴리 언덕과 들판(야외)에서 이루어졌다⁴¹

결국 내려포는 연결적, 관계적, 상호작용적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공동체의 이야기와 연결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내려포의 역할인 것이다.⁴²

내러포와 설교

파데스(PaRDeS)⁴³

예수님은 기원후 1세기에 통용되던 유대교의 성서해석학 방식인 PaRDeS 에 따른 해석 방식을 사용하셨다. PaRDeS에서 대문자로 표기된 4개의 알파벳 P, R, D, S는 각각 다른 4개의 해석학적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4단계로 이루어진 히브리 해석학이다.

각각 풀어서 설명하면, P는 페샤트(Peshat = 단순한, 평이한)의 P로써 표면적인 의미(문자적 해석)의 탐구를 나타낸다. R은 레메즈(Remez = 힌트, 직관적)로써

⁴⁰ Sweet, *Giving Blood*, 43-57.

⁴¹ Ibid.

⁴² Ibid., 23.

⁴³ 아래 내용은 2013년 11월 18일 레너드 스윗 교수가 D. Min 수업시간에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은유적인 해석의 단계이며, D는 데라쉬(Derash = 복합적이고 은유적인 미드라쉬)로써 장시간 검토와 연구를 통해 깊숙이 깔려있는 실제의 내용을 명료하게 전달해 주는 해석의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S는 소드(Sod=비밀)로써 토라가 담고 있는 비밀의 신비적인 해석, 곧 토라의 내재적인 비밀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페샤트는 할라카('올바른 길'이라는 뜻, 즉 본질적으로는 성문법을 해석한 구전법)를 해석할 때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해석 원칙들은 어떤 일정한 원전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레메즈('암시'라는 뜻, 유형학적[類型學的]·우의적 해석들)· 데라쉬 ('조사'라는 뜻, 미도트, 즉 규율들에 따른 성서 연구)· 소드 ('비밀'이라는 뜻, 신비주의적인 해석) 등이 그것이다. 이 네 단어들의 첫 글자들(PRDS)은 중세 스페인에서 4가지 기본적인 해석 원칙들 (문학적·철학적·추론적·신비적)에 관한 이론을 가리키는, 파라디세 (PaRaDiSe)라는 단어를 구성하는 두문자어(頭文字語)로 처음 사용되었다. 특히 시대적 필요나 선호에 따라 이 4가지 원칙들 가운데 하나가 지배적 위치를 차지했다. 초기 율법학자들과 랍비들의 시대(BC 4세기경~AD 2세기경)에는 페샤트를 선호했다. 훗날 탈무드 시대(3세기경~6세기경)에는 추론적인 의미(데라쉬)가 신의 영감을 받아 성서 본문을 기록한 저자들의 뜻을 더욱 적절히 전달하는 것으로, 즉 본문에서 윤리적·종교적인 함축을 찾아내려고 함으로써 원전을 더욱 시대에 부합되게 만드는 것으로 보았다. 카발라주의자들(중세와 근세 초기에 유럽과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한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은 더욱 폭넓은 사색을 허용한 레메즈와 소드를 해석 방법으로 즐겨 사용했다.⁴⁴

이 4개의 단계를 합쳐서 ParDeS 혹은 PARDES 라고 일컫는다. 예수님께서서는 4 단계로 구성된 ParDeS의 성서 해석 방법을 빠짐 없이 사용하셨다. 페샤트(Peshat)는 문자를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다. 레메즈(Remez)는 유형학적이다. 이에 반해 데라쉬(Derash)는 하나님 나라의 본성에 대하여 계시하는 비유들을 통해 드러나는 복수의 의미/뜻을 나타낸다. 미드라쉬(midrash)라는 히브리 단어는 본래 “묻다”라는 뜻을 가진 “다라쉬(Darash)”에서 나왔다. 데라쉬(Derash)도 마찬가지로 다라쉬(Darash)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이 미드라쉬 수준의 해석에서 랍비는 진리에 대한 자신의 해

⁴⁴ 다음백과사전 <http://100.daum.net/cp/47> (2016년 2월 2일 접속) 페샤트는 유대교 해석학에서 성서 원전의 단순하고 명백한 문자적인 뜻이다.

석을 만들어 낸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보다도 더 깊고 “비밀”스러운 해석(자신의 메시아 되심과 근본적으로 영감적이고 계시적인 삶의 의미에 관한)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이것이 바로 소드(Sod)이다. 우리의 해석은 대부분 위에 설명한 유대교 성서해석학의 4단계 중 2번째 단계인 레메즈(페샤트의 문자적 해석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지만 여전히 단조로운 전통적인 해석 방법)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더 풍부한 해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안쪽 깊숙한 부분까지 파고들 필요가 있다. 소드(Sod)는 감추어졌거나 비밀스러운 의미의 해석이다.

PaRDeS의 해석방법은 연역(deduction), 귀납(induction), 가추(abduction), 변환(transduction)의 방법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중 연역적, 귀납적, 가추적인 방법은 잘 알려진 것처럼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마지막의 변환(transduction)법은 고전적인 지식획득의 차원을 초월해서 오로지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만 상호작용이 가능한 더 깊은 해석에 도달하는 것이다.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에 있어서 연역법과 귀납법을 가장 친숙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동일하게 “전제(proposition)”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연역적 방법이든 귀납적 방법이든 그 해석은 일정한 원칙이나 의견을 바탕으로 세워진 전제에서 시작되었거나 혹은 그 전제로 향하기 때문이다.

가추법은 앞선 둘 보다는 좀 더 창의력과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직관을 바탕으로 설명 가능한 가설/가정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어떠한 경험이나 행위를 통해 반드시 사실로 입증될 수 있어야만 한다.

네 번째로 스윗이 추가한 마지막 해석법은 변환법(Transductive)인데 이것을 스윗은 "탈-구체화(trans-incarnational)"라고 부르기도 한다. 변환법은 계시된 진

리이다. 변환법을 통한 해석은 메시지 안에 드러난 내적 의미이자 계시된 진리이다. 가추법에서처럼 우뇌의 활동을 통한 직감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환영(reception)과 생기(animation)를 더하고 있다. 변환(transduction)을 통한 지식의 습득의 기원은 관계적이고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해석은 지식의 대상과 그 지식을 획득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과정은 사실이나 증거에 대한 탐색이 아닌 진리를 향한 탐구이다.

가추적인 방법에서 해석가는 이후에 경험과 행위를 통해 사실로 입증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또 타당한 가설을 만들어 낸다. 하지만 변환적 이해의 단계에서 그는 계시적인 지혜를 직접 보급해주는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며 우리의 영에 개입(bears on)하고 또 그 영을 드러내는/벗겨내는(bare) 스토리(story)와 형상(image) 안에 머물게 된다. 이것은 이성에만 기반을 둔 지식을 넘어서는 계시를 통한 앎이 있다. 변환적 해석은 “믿음”의 관계적 참여를 통해 진리와 의미를 변화시킨다.

철학적이고, 수학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의미의 “지식”은 외적이고 물리적인 증거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지막 단계(변환적 단계)의 “깨달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변환적 단계에서의 깨달음은 오로지 믿음을 통한 내적 변화와 구체화된 경험, 그리고 영의 변화, 회개 혹은 마음의 변화를 나타낸다. “탈-구체화/변환”의 과정은 시각, 청각, 근각 등 여러 감각의 경험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정답이 아닌 질문 속에서 발견되는 관계적 진리로서 증명하기 보다는 탐색을 하는 과정이며, 창을 닫아 지식을 가둬두는 것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여 창문을 여는 것이다.

스윗은 가장 높은 단계의 소통의 형태가 바로 “변환적 단계”라고 한다. 그리고 이 변환적 방법은 은유(Metaphor)에 기초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천국은 마치 . . . (그리고 이어서 은유가 등장한다) . . . ‘잃어버린 동전’ . . . ‘잃은 양’ . . . ‘잃어버린 아들(탕자)’ 와도 같다.”

변환법은 의미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그 의미를 전달하고 또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질문과 답을 통해 의미가 만들어 질 뿐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그 의미가 더 높고 깊은 단계로 변화된다. 이것은 의미가 구체화되어 “의미가 가진 의미들”을 알게 되는 것으로써 간단한 드라쉬의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쏘드(Sod)이다. 유대교 성서해석 방법인 PaRDeS에서 이 쏘드는 직설적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성한 체험에 가장 근접한 지식의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설교는 이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환적(Transductive)인 설교의 열쇠는 바로 이야기(Narrative)와 은유(Metaphor)의 합성어인 내러포(Narraphor)에 있다.

설교자를 가리켜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설교자는 은유와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이다. 바로 내러포(Narraphor)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오직 내러포(Narraphor)만이 인생을 변화시킬수 있는 변환적(Transductive) 방법이다.

“앎”의 수단으로써 변환적 해석법은 가장 효과적으로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가추적인 해석법과 함께 또 줄 곧 연역법이나 귀납법과도 같이 쓰인다면 설교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담론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가득한, 또 완전하고 상호적인 진리의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곧 믿음이 철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련하여 온전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설교자는 언어를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닌 이미지를 잘 다루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소통을 위한 PaRDeS의 4가지의 방법(연역적, 귀납적, 가추적, 변환적)을

모두 다 사용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이 4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중에 가장 위대한 방법은 바로 변환적 방법이다. 무심하거나 닫힌 생각은 주로 가추적, 귀납적, 연역적 논리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설교자는 4번째 요소인 변환적(혹은 탈-구체화된) 사고를 더함으로써 설교자의 주장은 이성은 초월하고 진리를 가리키며 참여가 생겨난다. 예수님을 통해 왜 그분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통가였는지를 살펴보면 이 개념들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될 수 있다.

이 파데스(PaRDeS)에 대해 스윗은 다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혈액형의 분류에 따라 A형 = 연역법(deduction) = 파데스(PaRDeS) , B형 = 귀납법(induction) = 레메즈 (Remez) , AB형 = 연역법과 귀납법의 혼합형태 = PaRDeS + Remez , O형 = 가추법(abduction) = 데라쉬(Derash), ABO+형 = 변환법(transduction) = 소드(Sod)로 설명을 한다.⁴⁵

이 세상의 모든 단어는 우선 은유에서 시작되어 이야기가 되고 그 이후에 만 들어진다. 예컨대 “기름(oil)” 이란 단어는 우선 그것에 대한 형상(Image)이 존재 하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만들어 진 뒤, 이후 “기름” 이라는 단어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윗은 우리 설교자들은 항상 배경이 되는 이야기(모든 것의 기원이 되는 이미지와 은유)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말한다.⁴⁶

(2) 설교문/ 레너드 스윗⁴⁷
요한복음 21:15~17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 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⁴⁵ Sweet, *Giving Blood*, 71-95.

⁴⁶ 이상은 레너드 스윗교수가 D. Min 수업시간에 강의한 내용을 참고하였다.

⁴⁷ 아래 내용은 2014년 1월 13~17일, “Let’s Tong Scriptura” Seminar에서 스윗이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왜 빵집이라는 이름이었을까요? 베들레헴에서 보리와 밀을 경작했습니다. 그래서 빵으로 유명했습니다. 빵의 재료가 되는 보리와 밀을 경작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아랍어로는 베들레헴을 고기의 집, 피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양떼들이 많았고 그들을 돌보는 목동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피의 집이라는 말은 ‘도축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드릴 때 사용하는 ‘제사용 양’을 전문적으로 기르고 조달하는 곳이었습니다. 한 쪽에서는 보리와 밀을 경작하고, 한쪽에서는 고기를 잡은 것이죠.

우리가 연결하지 못한 점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사가 벌어집니다. 이 제사에는 베들레헴에서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합니다.

베들레헴의 목동들은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할 양들을 기르는 특수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주 특별한 양이 예요. 성전에서 사용할 양이에요.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합니까 이것을 마치 영화 보듯이 장면을 생각해보십시오. 성전에 언제, 얼마나 많은 양들을 제사합니까? 매일, 아침, 저녁입니다.

문을 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양을 잡습니다. 오전 9시 정도 문을 열어서 - 양을 잡는 냄새로 문을 여는 지 압니다- 오후 3시쯤 문을 닫습니다. 양을 잡는 냄새가 나지 않으면 닫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의 제사는 매일 드려졌고 아침제사를 드리는데 두 마리의 양을 잡았고 오후에 저녁제사를 드릴 때 또 두 마리의 양을 잡았습니다. 최소한 일년에 $365 \times 4 = 1,460$ 마리의 양이 필요했습니다.

또 언제 필요하죠. 유월절, 자! 유월절의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매 해 한 명만 갑니까? 전 세대, 모든 사람이 갑니다.

가족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3만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에는 270 만 명 정도가 모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유월절만 빼고는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가족들 집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극심한 인구밀도의 증가로 온 도시가 몸살을 앓아야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일찍 출발해야 합니다. 양을 사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찍 가서 가족당 희생제물을 사야 합니다. 가족당 1마리의 양이 필요하죠. 부자라면 송아지를 드립니다. 보통사람들은 양입니다. 양 살 돈이 없으면 비둘기를 드립니다. 비둘기도 살 돈이 없습니다. 그 때는 곡식,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빵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송아지, 양, 이런 것을 가지고 갔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구하나요? 예루살렘에서 구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은 베들레헴에서 구하여 옵니다

유대 가족은 보통 7일 전에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아주 경건한 가정은 2주 정도 전에 갑니다. 한 주전에는 정결의식을 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월절에 필요한 양들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 많은 양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야 하는데, 양을 도대체 어디서 구해서 어디로 가져가야 하는지요? 여러분 중에 이 양들을 예루살렘으로 언제 어떻게 가져갔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드리죠. 양이 행진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 문을 통해서 언제 행진하느냐 하면 유월절 전 마지막 안식일 날 유월절에 행진해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양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장소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 날 행진이 있는데 그 행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날 빌라도도 자신의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양들이 행진하여 양의 문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진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장 완벽한 양의 행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진이었습니다.

잠깐, 이런 양의 행진에 들어가는 모든 양은 보통양은 아닙니다. 특별한 양이어야 합니다. 흠이 없는 양이어야 합니다. 어떤 양이어야 되죠. 제사장들은 유월절에 필요한 양들을 아웃 소싱을 통하여 준비시키도록 했는데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 이었습니다. 약 10만 마리의 양들을 ‘이런 양들을 원한다.’ 라고 말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들의 받아들이는 양의 조건을 이야기해줍니다. 그러기에 베들레헴의 목동들은 다른 특별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양이든지 태어날 때 흠이 있으면 죽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베들레헴에서도 도살이 일어납니다.

이제 유월절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무 흠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야기를 믿습니까? 말씀을 믿으십니까? 는 익숙하실텐데요. 양은 태어날 때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목동은 흠 없는 양을 위해서 태어나는 순간 최고의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새끼 양들이 아무 흠이 없게 하려면 특별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양들을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흠이 없게 하려고 다른 동물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양들을 말 구유에 올려 놓습니다. 그래서 새끼 양들을 안전하게 올려 놓은 것입니다.

이때 양들을 감쌀 천은 제사장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양들을 묶은 천은 보통천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특별한 천을 줍니다. 제사장들이 입은 옷은 낡으면 버릴 수 없습니다. 거룩한 성스러운 제사를 드렸던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사용하게 되는데 하나는 장례를 지낼 때 물어버립니다.

또 하나는 목자들에게 주어 어린 양을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목동은 제사장에게서 받은 천을 가지고 어린 양을 감싸서 보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강보에 싸여 구유에 놓여 있던 아기의 모습은 목동들에게는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익숙하고 친근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월절 제사에 드려질 양을 보호했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어린 양이 아니라 완벽한 양이 하나님의 양이 누워계신 것입니다.

양이 태어날 때 새끼에게도 어미에게도 위험한 순간인데 이때 어미 양이 출산과정에서 죽기도 합니다. 그때 목동들은 그 양을 다른 어미에게 맡겨서 길러야 하는데 양은 냄새로 자기 새끼들을 구별해 냅니다. 목동들은 어미 잃은 양을 맡기기 위해서 다른 어미의 젖이나 출산 부산물 배설물을 고아 양에게 칠해서 냄새를 옮긴다. 그래서 구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매우 작은 양은 그래도 그것을 구별해 내는데 목자들은 최후의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이 출산할 때 생긴 부산물(피와 탯줄 태반)을 보관했습니다. 거기에 물을 섞어서 ‘핏물’을 만듭니다. 어미 잃은 양을 거기에 목욕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어미 양이 구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냄새가 사라지는가? 그것은 피에 목욕을 했을 때입니다. 피에 씻겨서 흠 없는 양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흠없는 양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요? 오전 9시입니다. 성전의 문을 열 때가 언제인가요? 오전 9시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 성전이 문을 여는 시간에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매달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형은 고문형이었습니다. 천천히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진행됩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형벌입니다. 심정적 감정적으로도 죽이는 것, 심리적으로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냄새가 너무나 지독합니다. 몸의 모든 것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피와 토사물과 배설물, 모든 것이 섞여 있습니다. 가까이 가게 되면 여러분의 몸에도 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명의 여자가 예수님 곁에 갔다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주 짧은 시간에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원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심장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심장이 파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심장파열로 인하여 예수님은 단시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미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눈을 감고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시고 나에게 말해주세요. 예수님의 식사를 하시는 것을 떠올리면 할 수 있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압니다. 노래하셨다는 것도 알아요. 주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시면서 찬송하면서 가셨습니다. 유월절 찬송입니다. 무엇을 부르셨는가? 시편 114- 118 편이 유월절 찬송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찬송하셨습니다.

또 다른 찬송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위대한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절에 너무나 익숙하기에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는 찬송 중에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찬송을 하셨습니다. 그 찬송의 구절은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 . . .’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 편의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음과 멜로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은 찬송가입니다. 한 절 만이 아니라 시편 22 편 전부를 찬송한 것입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찬송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처절한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그 마지막은 ‘승리의 송가’ 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의 고백이고 이 찬송이 끝났다는 것은 “승리했습니다.” 는 선언이며 고백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대제사장의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성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세상과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양들이 다 죽었습니다. 도살의 집이 더 이상 도살의 집이 아닙니다. 이제 도살의 집의 임무를 마쳤습니다. 더 이상 양들은 죽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도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완벽한 양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베들레헴이 떡의 집이고, 피의 집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셨고, 십자가의 돌아가시면서 보혈의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베들레헴의 모든 꿈과 소망이 예수님 자신으로 떡의 집이요. 피의 집으로 스스로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야기는 성경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연결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유월절 제물인 어린 양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왜 4일 먼저 양을

준비해야 하느냐? 최소한 제사를 드리는 제물과 4일을 지내야 합니다. 희생의 제사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마치 가족의 일원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양에게 먹고 싶은 것을 다 줍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다 같이 갑니다. 그 때 속죄물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뒤에 가족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어깨의 양이 있습니다. 가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양을 내려 놓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받지 않습니다.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양을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야 합니다. “내 양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묻습니다.

“너의 양을 사랑하느냐?” “내 양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시키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때 양을 잡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장에게 제물이 되는 내 양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시키지 못하면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아가페)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물으셨지만 역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렇다면 ‘필레오’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 제물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네가 그것이 최선이라면 그것을 받을게.

초대교회는 이 것을 읽었어요. 듣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입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나야 합니다.”⁴⁸

성서기호학을 통해 성경읽기를 하면 입체적인 살아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⁴⁸Leonard Sweet, “Let’s Tong Scriptura” Seminar, 2014년 1월 13~17일

통(通 Tong)

통(通 Tong)의 개념정의

통(通 Tong)의 정의

보통 전체를 일컫는 말인 통은 한글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중의 하나이다. 설명하자면 “통(通)이라는 글자는 주로 ‘통달’, 소통, 화통, 정보통 등과 같이 다른 한자어와 함께 단어를 이루어 사용되었고, 그 외에는 서로 뜻이 맞거나 생각이 같을 때를 표현하는 말로 ‘통하다’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병호가 말하는 통(通)은 일반적인 의미 그 이상을 뜻한다. 그에 의하면 통은 “서로 다른 영역이나 방식, 관점이나 입장을 우선 그 각각으로 이해하고, 이어서 그러한 다름의 사이에서 그 관계성을 파악하고, 마침내 총체적 인식을 풍요롭게 하는 유익을 발생시키는 사고방식이다.”⁴⁹ 일반적으로 통(通)이라는 글자는 ‘통하다’는 말로 표현될 뿐이지만 조병호가 말하는 통(通)은 통(通)이라는 글자를 사용한 외자의 단어로서 ‘통(通)으로 보다’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많은 관점에서 다양하게 비춰질 수 있는 대상의 여러 가지 인식을 총체적으로 종합하여 결론짓는 것이 바로 통(通)인 셈이다.

특히 조병호가 주목하는 통은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의 통합을 의미한다. 사실 성경은 서양적 사고방식의 토대에서 오랫동안 이해되고 전달되어 왔다. 그러나 동양적 사고방식과 성경이 만났을 때 이해와 전달에 어려움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통의 관점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통(通)으로 본다’는 말은 ‘어떠한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을 이루고 있는 갖은 요소를 다양한 경로와 관점을 통해 이해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통(通)으로 본다는 것은 실체의 속성과 본질에 집중하는 서양의 사고방식 기반 위에, 본질적인 특징을 상황과 관계 안에서 찾아내는 동양의 사고방식이

⁴⁹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8), 44.

조화를 이룬 것이다. 동양적인 인식방식과 서양적인 인식방식을 두루 섭렵하여 총체적인 사고를 한다는 뜻이다.⁵⁰

조병호가 제시하듯이 동양과 서양의 인식방식을 통합한 사고방법은 분절되고 분화된 생각과 삶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양의 사고방식이 관계를 기반으로 했다면, 서양의 사고방식은 계약을 기반으로 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은 관계만도 아니고 계약만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관계와 계약을 불가분의 위치에 있으며 이를 통합적으로 보아야 삶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통(通)신학

통(通)신학이란 ‘통(通)’ 과 ‘통(通)으로 보다’ 라는 말의 의미를 조병호가 성경읽기 방식에 적용시킨 기독교 경전해석의 방법론이다. 조병호는 “지금까지 서구의 경전읽기 방식은 분석적이고 부분적인 방식 위주로 성경을 보는 것이고, 동양적인 성경읽기 방식은 전체적인 성경읽기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방법이 함께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⁵¹라고 말한다.

통(通)의 사고방식을 적용하여 성경을 새롭게 조명하는 통(通)신학의 방법론으로서 공시적(共時: synchronic) 성경읽기와 통시적(通時: diachronic) 성경읽기의 통합이 있다. 공시(共時synchronic)란 동일한 시간 영역을 지칭한 말로서 시간의 가로축을 의미하고, 영원한 진리가 시간이나 역사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내려 한다. 귀납적(歸納的: inductive)이다. 이는 역사비평에 대한 반성에서 나

⁵⁰ Ibid.

“통(通) 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대상을 인식하는 다양한 경로와 관점들 간에 상보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유기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계열성이 있어야 한다.”

⁵¹ Ibid., 49

은 것으로 신문학비평에 의해 제안된 해석방법이다. 통시(通時diachronic)란 연속되는 시간 흐름을 지칭한 말로서 시간의 세로축을 의미한다. 시간이나 역사를 관통하며 흐르는 변함없는 진리를 주제별로 찾아낸다. 연역적(演繹的: deductive)이다.

조병호는 부분적 성경읽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와 같은 두 가지 방법, 즉 공시적(共時的) 성경읽기와 통시적(通時的) 성경읽기가 통(通)으로 묶여야 함을 주장한다.⁵²

성경통독과 통(通)신학

조병호는 “성경을 통(通)으로 볼 때, 신구약 성경 66 권 전체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 있게 인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대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와 본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다”⁵³고 한다. 성경통독은 통신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통(通)신학이란 ‘통(通)’과 ‘통(通)으로 보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병호가 성경읽기 방식에 적용시킨 기독교 경전해석의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통신학이란 성경통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조병호는 “성경통독은 첫째,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다. 둘째,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재배열하여 읽는다. 셋째,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⁵⁴ 그리고 통(通)신학이란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총체적인 입장에서 수렴하여 성경을 보는 것이다. 성경통독은 통(通)신학의 필수적인 조건이자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통(通)신학을 할 수 있으려면 성경을 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숙지해야 하며, 그러한 관점들을

⁵² Ibid.

⁵³ Ibid., 50.

⁵⁴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3), 12-13.

상보적·유기적으로 아우를 수 있어야 하는데, 성경을 보는 다양한 관점은 성경통독을 통하여 얻어지기 때문이다.”⁵⁵

조병호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1989년 성경통독원이라는 성경통독전문기관을 세워 지금까지 꾸준히 한국교회에서 성경통독(聖經通讀) 운동을 해왔다. 부분적으로 읽었던 66권을 ‘성경은 한 권의 책’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부분이 아닌 전체를 읽어 내려간다. 성경을 통독할 때 숲(전체)과 나무(부분), 이 두가지를 모두 염두에 두고 읽자는 의미에서 그는 이 성경통독 방식에 ‘숲과 나무’라는 이름을 붙였다.⁵⁶

성경은 ‘예수 이야기’ Jesus Story 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말라기>까지 구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 스토리 Back Story 이고, 신약성경의<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 복음서는 본격적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사도행전>에서<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예수 이야기 전체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노래가 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소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⁵⁷

성경통독의 방법을 귀로 듣고, 소리 내어 읽고, 눈으로 읽고,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묵상하는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듣기인데 1년 10독이 청독(聽讀)으로 가능하며, 48시간이면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는데⁵⁸ 청독(聽讀)의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⁵⁹

조병호는 2006년 삶의 방법론이자 새로운 성경 읽기의 방식으로 '통(通)'을 최초로 말했고, 2014년에는 "통通성경 포뮬라(Formula for TongBible)"를

⁵⁵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44.

⁵⁶ 성경통독원 홈페이지, <http://tongdok.net> 성경통독, 성경통독이란? (2016년 2월 2일 접속).

⁵⁷ 조병호,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가이드북* (서울: 성경통독원, 2014), 8.

⁵⁸ Ibid., 6-7.

⁵⁹ Ibid., 8-11.

발표하였으며 2015년에는 통통성경학교를 개설했다.

통(通)성경포물라는 성경으로 개인, 가정, 나라가 살 수 있고 성경으로 전도하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통성경 포물라는 7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Pre step 1 그 순간, Pre step 2: 성경과 영성, Step 1: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7가지 질문), Step 2: 하나님 마음(성경통독), Step 3: 성경줄기(통성경 길라잡이), Step 4: 성경을 통한 기도(일년일독 통독성경), Step 5: Family School(성경과 5대 제국)⁶⁰

통통성경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통(通)성경은 첫째, 시간·공간·인간을 통(通)으로, 개인·가정·나라를 통(通)으로, 제사장 나라·5대제국·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7개 트랙과 7개 스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둘째, 성경을 파편화(fragmented books and multiple disconnected stories) 하지 않고 66권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One Story)로 모든 부모가 5세부터 20세 전 자기 자녀에게 쉽고, 재미있고, 이어지는 이야기로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칠수 있는 성경을 말한다.⁶¹

통(通)신학의 구체적인 방법⁶²

첫째, 하나의 대상에 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통시적(通時的) 관점 과 공시적(共時的) 관점을 동시에 활용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 1> 공시적 관점과 통시적 관점의 동시활용

	共 時 →	
通 時 ↓	이사야	미가, 아모스, 호세아
	예레미야	하박국, 나훔, 스바냐
	느헤미야	에스라, 말라기

⁶⁰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 브로셔, 성경통독원, 2015년

⁶¹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6), 18-29.

⁶² Ibid., 55.

통시(通時)란 연속되는 시간 흐름을 지칭한 말로서 시간의 세로축을 의미한다. 시간이나 역사를 관통하며 흐르는 변함없는 진리를 주제별로 찾아낸다. 이 통시적 관점(通時的 觀點)에 따라 이사야, 예레미야, 느헤미야를 같이 살펴본다.

공시(共時)란 동일한 시간 영역을 지칭한 말로서 시간의 가로축을 의미하고, 영원한 진리가 시간이나 역사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내려 한다. 이 공시적 관점(共時的 觀點)에 따라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한 미가, 아모스, 호세아를 같이 읽는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와 하박국, 나훔, 스바냐를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 말라기를 같이 읽는다.

둘째, 분리된 개체 속에 부여할 수 있는 공통특성을 찾는 것이다. 통(通)의 인식방법을 통해서 개체가 지니는 부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질서와 조화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예를 오케스트라로 비유해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오케스트라의 기준음은 다양한 악기들이 내는 소리가 서로 통하게 하는 열쇠이자, 협연의 기반이 된다. 오케스트라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악기들이 기준음을 서로 맞춘다는 것이 확일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기준음을 서로 통하게 하는 것은 다양성을 저해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오케스트라 내의 모든 악기가 각각 그 개체마다 지니고 있는 특징을 더욱 부각시키고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셋째,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보는 것이다. 전체와 부분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현상의 두 가지 얼굴이므로 부분에만 초점을 기울이다 보면 상존하기 마련인 전체와 부분 사이의 간극에서 발전적인 의미를 찾아내기가 어렵다. 반대로 전체만 강조하다 보면 개체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거나 무시될 위험성이 있다. 통(通)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이 전체와 부분이라는 두 가지 영역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성경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넷째, Text 와 Context 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이다. 어떤 대상을 통(通)으로 본다는 것은 대상 자체의 속성에 주목하는 것과 동시에 대상을 보는 관점이나 경로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Text 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Text 와 Context 를 각기 다른 현상으로 취급하게 되면 현상의 본질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진다. Text 와 Context 를 서로 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균형 잡힌 사고가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통(通)신학의 구체적 방법은 Text 로의 성경 자체와 Text 가 기록될 당시의 Context 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현대의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성경을 볼 것인가에는 관심이 많지만 ‘그 때 거기서’ 그 기록이 무슨 의미를 담고 기록되었는가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Context 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록을 해석한다면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좁은 시각이나 편견을 가지게 될 위험의 소지가 있다.⁶³ 예를 들면 성경에서 다윗의 삶의 행적과 다윗이 지은 시를 함께 봄으로써 Text 와 Context 의 상보성 위에서 말씀이 더욱 명확하게 이해된다.

다섯째, 극단을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것이다. 명확한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서로 배타성을 띄고 있는 현상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현상의 양극단을 전체적 입장에서 아울러내는 것이 바로 통(通)의 구체적 방법 중 하나이다. 대체로 서양의 논리가 ‘either-or’ 로 모아지고 동양의 논리는 ‘both-and’ 를 향한다고 보면 극과 극은 서로 통한다고 보는 것은 동양적인 발상에 가깝다. 바로 이러한 발상이 21 세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⁶⁴

⁶³ 김근수, *슬픈 예수* (서울: 21세기 북스, 2013), 11. *Sitz im Leben*. "삶의 자리", 성서를 이해하려면, 성서가 쓰여진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Sitz im Tode*. "죽음의 자리." 죽기 이전 죽음에 더 관심 갖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임무라는 뜻이다.

⁶⁴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53-65.

내러포(Narraphor)와 통(通 Tong)의 연관관계

내러포(narraphor)는 스윗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이야기(narrative)와 은유(metaphor), 두 단어의 합성어다.⁶⁵ 이야기와 은유는 형식적으로 서로 구별되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매우 유사하다. 내러포는 이야기 속에 이미지와 은유를 포함시켜 청중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상황에서 경험하는 것들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그리고 다층적으로 인식하고 느끼게 한다.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은유와 이미지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서 기호학은 지금 이 시대의 문화에 적합한 성경 해석 방법이자 소통의 도구”가 내러포이다.

조병호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예수를 주인공으로 하는 하나의 이야기로 본다. 그래서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고, 통(通)으로 읽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공시적(共時: synchronic), 통시적(通時: diachronic) 성경읽기를 통(通)으로, 서양의 분석적, 동양의 직관적 해석을 통(通)으로 살펴 성경을 정경적이며 동시에 심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⁶⁶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에서 레너드 스윗은 “미래교회는 동서양교회가 얼마나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동서양이 미래의 동반자로 만나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 설 것”을 적극 주문했다. 그리고 “Let’s Tong(通)”을 외치면서 성경통독을 의미하는 ‘TONG(通)-BIBLE’을 21세기 동서 미래 협력과 소통의 새로운 통로로 선언했다. ‘통(通)’이란 동양과 서양의 최고의 것을 합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⁶⁷

스윗은 “서구사회는 예수의 깊은 진리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성경에 대해

⁶⁵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527.

⁶⁶ 조병호, *성경통독*, 7.

⁶⁷ 레너드 스윗과 조병호 두 사람은 2007년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2007년 5월 22일, 잠실체육관) 이후 공동작업을 해왔다. 부록III 참조

객관적 입장을 강조해 온 나머지 성경이 죽기 직전까지 계속 분석하고 쪼개 냈습니다. 서구의 계약 중심적 사고에 빠진 기독교를 구출해 내야 합니다. 동양이 간직한 정신에서 여기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⁶⁸고 했다. 스윗은 그 예로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적 풍토를 현 기독교에 접목할 것을 제안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고 자신들의 입장을 정설로 확신시키는 ‘명제적 교회’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참된 사랑의 관계가 넘쳐나는 ‘관계적 교회’로 넘어설 것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성공지향적이고, 체인 영업식 교회 재생산 등을 추구하는 ‘식민지적 교회’를 비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이 기독교인의 삶의 원형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이와 함께 스윗은 포스트모던 문화 속에서 표류하는 교회를 위한 대책으로 ‘EPIC 모델’을 제시했다. ‘EPIC’ 내러포의 구성요소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경험성(Experiential), 참여성(Participatory), 이미지 중심성(Image-rich), 연결성(Connected), 이 네 단어의 앞글자를 모아 만들어낸 조합어이다. 모던(Modern)시대에 사람들이 삶을 파악하길 원했다면, 포스트모던(Post Modern)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은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길 원한다. 사람들은 믿기 전에 경험하길 원한다. 이때 교회는 치료자의 역할, 이야기가 넘치는 공간으로의 역할, 평화조정자의 역할, 콘텐츠 제공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또한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화적인 설교, 친교의 성례전, 인터넷 교회 등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스윗은 “포스트모던 시대는 역설적이지만 개인주의의 추구하고 연결을 위한 갈망이 동시에 공존한다”며 “음악 그룹을 만드는 등 자기 나뉠대로의 공동체를 추

⁶⁸ 김근혜, *몸학기독교연구소* <http://freeview.org>, 2007년 5월 23일 기사. (2016년 2월 2일 접속).

구하는 이들에게 교회가 참된 관계를 가진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고 밝혔다.⁶⁹ 2010년 4월 15일에는 ‘통통 매니페스토 컨퍼런스’ (Tong Manifesto conference)가 통독원 주최로 개최되었다.⁷⁰

이 컨퍼런스는 2007년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 2008년 6월 한국 신학자 140인 서울선언: 성경을 통한 재정향 등의 연장선상에서 열린 것으로 21세기 교회를 향해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언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성경과 통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21세기 동·서 교회에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2007년 성경통독을 의미하는 ‘TONG(通)-BIBLE’ 을 21세기 동서 미래 협력과 소통의 새로운 통로로 선언한 바 있는 레너드 스윗이 다시 한국을 찾았다. 자신의 ‘예수 선언(Jesus Manifesto)’ 과 조병호의 ‘성경 선언(A Bible Manifesto)’ 을 묶는 ‘통통 선언(Tong Manifesto)’ 을 위해서다. 이에 스윗은 2010년 4월 12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조병호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통통 매니페스토 컨퍼런스’ 에 대해 설명했다. 스윗은 한국 방문의 목적이 자신의 ‘예수선언’ 을 완성시키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method)이 조병호의 ‘통통 성경읽기’ 로 판단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성경의 연장선상에서 삶 자체가 드러나는, 구약 및 신약에 이은 ‘제 3의 경전’ 을 써야 하는데 ‘통’ 의 방법을 통해 이것을 시도하려고 한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통 성경읽기’ 는 유대 랍비들이 자녀교육을 시키는 방식인 ‘이야기(story) 중시’ 방식의 성경읽기로, 성경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을 길러준다” 며 “제 3의 경전을 완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 이라고 강조했다.

레너드 스윗은 지난 2007년의 ‘TONG(通)-BIBLE’ 선언을 서구 사회에서의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들은 논의하기 위함도 있음을 피력했다. 그는 “2007년 이후 ‘통통 성경읽기’ 를 서구 사회에 적용시키기 위해 시도했으나, 통 메소드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경험해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이나 기회들을 만들기 위해 방문했다” 며 “시간이 걸려도 계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성경대로 사는 삶이 배제된 채 성경을 분석, 해부하면 서구교회처럼 쇠퇴할 수밖에 없다” 며 “이 컨퍼런스는 기독교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주권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⁷¹

⁶⁹ 김근혜, 목학기독교연구원 <http://freeview.org>, 2007.5.23. 기사. 뛰어난 안목을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스윗의 놀라운 통찰력에 미국의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 윌로우크릭 커뮤니티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도 그에게 미래교회를 위한 목회 아이디어를 듣고 있다. (2016년 2월 2일 접속.)

⁷⁰ 2010.4.15. 장충체육관.

⁷¹ 이병왕, 뉴스미션 <http://www.newsmission.com>, 2010.4.13. (2015년 2월 2일 접속.)

그리고 2014년 1월 13~17일 ‘렛츠통 스크립투라(Let’s Tong Scriptura)’ 세미나가 성경통독원 주최로 서울 한강호텔에서 열렸다. ‘Bible and Semiotics(성경과 기호학)’를 주제로 스윗은 오전에 성경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 성경의 이미지와 메타포, ‘Oral Story & One Story) 등을, 오후에는 조병호가 ‘Bible and Tong Story(성경과 통(通) 스토리)’를 주제로 바이블 통 트랙스 7,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신구약 중간사 등을 각각 강연하였다. 둘은 지난 2007년과 2010년 함께 강연한 바 있다.

성경통독원측은 “이번 세미나는 종교개혁 5백주년을 몇 년 앞둔 시점에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인 ‘오직 성경’을 다시금 새롭게 다짐하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함께 뜻을 모으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또 교회의 권위는 ‘오직 성경’에서 나오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믿음에 의해 가능하며, 성도들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종교개혁의 대주제를 다시 상기하고자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스윗은 첫날 세미나에서 머릿글자 ‘R’과 ‘3가지’로 많은 부분을 설명했다. 그는 “교회를 통틀어 모든 부흥(Revival)과 개혁(Reformation), 혁신(Renewal)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며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에서도 일어났던 일”이라고 소개했다.

이 세 가지 중 첫째는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Return to the Bible)이다. 둘째는 이 성경이 그 문화에 속한 언어로 읽히는 것(Readed by thier Culture)이고, 셋째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는 것(Rediscovery Jesus Christ)’이다. 그는 “로프가 서로 꼬여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듯, 이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엮여 있다”며 “이렇듯 서로 다른 두 가지를 보완하고 협력하면서 능력을 만들어내는 이 세 가지를 저는 삼위일체가 그러하듯 ‘성스러운 삼겹줄’이라 부른다”고 말했다.

스윗은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진정한 본질로 돌아가는 것으로, 여러분도 본질이 되길 원한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보다 가장 원초적인 상태로 돌아가 그 속에서 새로움을 입어야 한다”며 “이것이 가장 진정한 의미의 창조성으로, 우리 자신의 창조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소개했다.⁷²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병호와 스윗 두 사람은 조병호의 통(通)과 스윗의 내러포(narraphor)라는 두 개념에 대한 교감을 가지고 공동작업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여기까지 스윗의 내러포와 조병호의 통을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자는 두 개념을 합쳐서 설교하는 유형을 통(通)/내러포(Tong/narraphor)라고 부르기로

⁷² 이대웅,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2014.1.13. (2016년 2월 2일 접속).

한다.

제 III 장

통(通)/내러포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의 필요성

설교의 유형

정인교는 설교의 유형은 독일식과 미국식 분류가 있다고 한다. “독일어권에서는 내용에 따라 분류를 하기 때문에 주로 본문설교(Text Perdigt)와 주제설교(Thema Perdigt)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에서는 ‘성서 본문을 다룬다’는 대전제하에 제목설교(Topical Sermon), 본문설교(Textual Sermon), 그리고 강해설교(Expository Sermon)로 나눈다.”¹

제목설교는 제목에 따라 설교의 요점이 정해진다. 제목을 따라 논지를 세우고 내용을 정하여 설교한다. 본문 설교는 성경 본문에서 어떤 간단한 주제를 끌어낼 수 있으며 그 본문이 제공하는 구분 하에 주제가 논의가 된다. 성경 본문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특수한 주제를 찾아내고 정확한 구분을 찾는다.

강해설교는 성경본문에서 설교의 내용을 도출해 내므로 내용이 본문과 같아야 한다. 본문의 배경을 연구하고, 각각 단어의 분명한 의미를 살핀 다음에 문맥을 파악하고 거기서 주는 교훈을 오늘의 삶에 적용시킨다.

이런 구분외에 다양한 설교의 유형이 있다. 설교의 역사에 있어 시대에 따라 변하는 상황적 요인과 회중의 요구에 따라 설교의 유형은 그 시대마다 선호하는

¹ 정인교, *설교학 총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283.

유형이 있었다. 오늘날은 급변하는 청중에 따라 설교의 유형은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야기설교(Story-telling Preaching, Narrative Preaching)는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유형이지만 잊어버렸던 유형이었고, 최근에 다시 대두되었다.

이야기설교는 이 논문에서 언급하는 내러포(이야기와 은유)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야기설교의 중요한 요소는 상상력이다. 상상은 마음 속에 이미지를 만드는 능력인데 개념적인 언어를 그림언어로 바꾸고, 논리적인 설명에서 시각적 이미지로 바꾸어 설교하는 것이 관건이다. 워렌 위어스비는 “상상은 정신이라는 인간 내면의 화랑(畫廊)에 어떤 상(像)을 만들어내는 정신작용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건강한 상상을 길러내서 목회에 사용하는 일이 중요하다.”²고 한다.

이야기설교의 또 하나의 요소는 플롯(Plot)이다. 유진 로우리는 플롯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눈다.³ 하나는 심각한 모순에서 시작하여 예측할 수 없는 해결점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영화이다. 다른 하나는 모순에서 시작하여 이미 다 알려진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텔레비전이나 설교가 해당된다. 로우리는 이야기 설교의 작성단계를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⁴ 1) 평형(平衡)을 뒤집어라. 청중을 설교의 주제에 참여시켜 그들이 늘 가지고 있는 생각(평형)을 뒤집어 놓는다.

2) 모순(矛盾)을 분석하라. 왜 그런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진단을 한다.

3) 해결의 실마리를 드러내라. 문제의 해결을 설명하는데 원인과 결과, 변화된 원인, 변화된 가정, 변화된 논리의 역전이 있다. 4) 복음을 경험하라. 5) 결과를 기대하라.

² Warren W. Wiersbe, *Preaching & Teaching with Imagintion: The Quest for Biblical Minnstry*, 이장우 역, *상상이 담긴 설교* (서울: 요단출판사, 1998), 34-37.

³ Eugene Lowry, *The Homiletical Plot*, 이연길 역, *이야기식 설교구성*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7), 33-34.

⁴ *Ibid.*, 39-98.

전통적인 설교에서 마지막 부분에 클라이맥스가 있다면 해결의 순간에 헌신으로의 초청을 해야한다. 이 해결의 결과로 말미암아 문제를 다시 정돈하는 것이 설교의 ‘물음’ 과 동등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대화설교는 설교자 1인이 말하는 방식에서 질문과 대답하는 대화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청중을 설교에 끌어들이 반응하게 하고, 청중의 견해를 설교 속으로 수용해 들이는 방식이다.⁵

정인교는 찬송설교에 대해 “찬송설교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유럽 강단에 자리잡아 온 방식으로 설교의 본문을 성서대신 특정한 찬송가로 잡는다는 특징이 있다 . . . 메시지 추출과 작시자의 독특한 체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의 내용을 결정한다. 한편 최근에 애용되고 있는 찬송설교는 다양한 찬송과 복음성가들을 설교내용에 따라 함께 사용하는 방식”⁶ 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적인 방법을 설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도가 있다.

역할설교란 설교자 한 사람의 구연으로 진행되는 방식을 바꾸어 설교의 진행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등장시켜 설교의 전달효과를 높이려는 유형이다. 스킷드라마설교는 스킷드라마를 사용한다. 스킷드라마는 정통적인 연극이라기 보다 약식으로 일정한 시사적인 주제를 짧은 극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다. 영상설교는 멀티미디어의 기능을 설교에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설교 내용의 전달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다.⁷

지금까지 행해진 설교의 역사에 있어 청중들에게 익숙하고, 오랜 세월동안 행해진 설교의 유형을 전통적이라고 한다면, 다른 유형은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⁵ 정인교, *설교학총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325-326.

⁶ Ibid., 326-328.

⁷ Ibid., 328-333.

있다. 이와 같은 설교의 다양한 유형은 설교자가 청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자가 제시하려는 통/내러포 설교 또한 이 범주에 속한다.

설교와 청중

시대를 막론하고 설교자와 청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하다. 설교에 있어서 두가지 중요한 영역은 ‘무엇을 전할것인가(what?)’ 와 ‘어떻게 (How?) 전할 것인가?’ 이다. 김운용은 이렇게 말한다.

설교의 핵심은 복음인데 그 동안 설교자들은 ‘무엇을 전할 것인가’ (the what of preaching)에는 깊이 관심을 가져왔지만 ‘어떻게 전할 것인가?’ (the how of preaching)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 . . 1970 년대 이래 현대설교학에서 가장 깊이 관심을 두는 부분의 하나는 설교의 형태에 대한 것이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설교 사역을 감당하려는 설교자는 마땅히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어떻게 말씀이 들려지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인간의 의식 속에 어떻게 작용이 일어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⁸

김진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성경의 언어가 살아있는 이유는 풍성한 그림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 신학교육은 어떤가? 성경의 그림언어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가고 있다. 평신도 시절에는 모르던 신학용어들이 신학교에 가면 넘쳐난다. 예정, 칭의, 성화, 구속, 무효, 존재론, 화체설, 불가항력, 견인, 가시지적, 비가시적, 섭리, 전지, 전능, 무소부재 등 신학 용어들을 반복해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신학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루 중무장한 상아탑의 일부가 되어 버린다. 결국 설교시간에 이런 용어들이 입에서 튀어나온다. 이런 신학 용어가 필요없다는 말은 아니다. 잘 정비된 신학 용어는 성경의 개념 정리에 아주 유용하다.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매우 심오한 진리를 우리가 시청각으로 느낄 수 있는 비유로 쉽게 설명하셨다.⁹

⁸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173-175.

⁹ 김진규, *히브리 시인에게 설교를 배우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50-51.

대부분 설교자들은 단어와 그 개념을 설명하는데 집중해왔다. 즉 마치 설교가 특정한 개념을 신학화하여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다.

이야기 설교가 이연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설교가 지루하다고들 말한다. 왜 설교가 재미없고 지루할까? 설교자도 행복하고 듣는 자도 행복한 설교가 없을까? 설교가 지루하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설교 내용이 회중의 삶과는 연결성이 없는 개념을 다루기 때문이다. 둘째, 성경 본문을 깊이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을 자기가 전하려는 내용에 인용된 성구 정도에 불과한 역할을 할 때가 많다. 또한 성구를 무조건 나열하고 해석해서 내용이 산발적이 되는 경우도 많다. 교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수준에서 이야기하니 어찌 지루하지 않겠는가? 셋째, 내용 구성에 극적인 면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진부하게 성경 내용을 설명해 나가니 누가 재미있다고 하겠는가? 사실 성경은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단지 진리를 보여줄 뿐이다. 성경은 믿음을 말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교인들은 바로 그런 성경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야기에는 극적인 관심을 끄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즐거움을 더해 준다.”¹⁰

워렌 위어스비는 사무엘하 17장의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반역한 압살롬에게 전략을 말하는 모사 아히도벨과 후세를 비교한다. 아히도벨은 지성에 호소하는 좌뇌 접근방식을 택하여 논리만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했고 거부되었다. 후세는 감정에 호소하는 우뇌접근방식을 택하여 그림을 그리듯 언어를 사용하여 압살롬이 보고 느끼게 만들었다.¹¹ 후세는 후세는 효과적인 설교에 필수불가결한 3가지 핵심요소인 사람과 주변 세계 그리고 말의 힘을 잘 알고 이를 사용하였다.¹² 결과적으로 압살롬은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였다.

워렌 위어스비는 다시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설교자가 행한 설교를 비교하며

¹⁰ 이연길, *이야기 설교학* (서울: 콤파스출판사, 2013), 165-169.

¹¹ Ibid., 21-26.

¹² Ibid., 31-77.

장두만, *청중이 귀를 기울이는 설교* (서울: 요단출판사, 2009), 31.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대처할머니는 주일날 아침 30년동안 한결같이 앉는 교회좌석에 가서 앉았다. “아예 교회에 가서 살라” 는 욕설을 불신자인 남편에게 주일 날마다 들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겨울이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따라 몸이 더 불편했다. 주님과 성경과 믿는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벌써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목사님이 설교시간에 단상에 오르지 할머니는 기도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저한테 특별한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전 지금 그게 필요해요!” 오늘의 성경 본문은 창세기 9장, 창세기 강해 스물 두 번째 메시지로 설교제목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다” 였다. 본문을 낭독한 목사는 아카데미한 연구 자세를 좀 자랑하는 듯한 태도로 그날 메시지의 개요를 말하기 시작했다.

1. 나타난 피조세계의 모습(9:1~3)
2. 심판의 주요 내용(9:4~7)
3. 약속된 계약(9:8~17)
4. 육욕(肉慾)의 사건(9:18~23)
5. 예언된 사건의 대가(9:24~29)

몇몇 교인들은 이 개요를 받아적었으나 할머니는 실망감에 한숨부터 나왔다. “지난주와 비슷한 타령이겠군!” 할머니는 등을 좌석에 기대 후 아예 마음을 꺼버리고, 남편이 속을 해집어 놓기 전까지 읽었던 시편을 묵상하기 시작했다.

몇 주 후 목사님이 지방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생겨 남미 안데스 산맥 인근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일했던 은퇴한 선교사가 설교를 맡게 되었다. 그 선교사가 택한 설교본문은 창세기 9장이었다. 설교 제목은 “늘 무지개를 찾으라!” 였다. 대처 할머니 생각에 설교 제목부터가 체법 흥미로웠다. 선교사는 선교지 어느 산중에서 만났던 지독한 비바람을 얘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다. “노아가 우리와 같이 있었으면 실을 지경이었습시다. 노아라면 그 빗속에서도 뭔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의 은근한 농담에 교인들이 쿡쿡거리며 웃었다.

그때놓고 선교사는 우리 인생에 닥치는 비바람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 음성 자체에서 동정심과 이해를 느낀 교인들은 선교사 자신이 인생 풍파를 적잖이 겪은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비바람은 우리 인생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런 식으로 만드셨어요. 하지만 여러 해 동안 저에게 도움이 됐던 비밀 하나를 저는 터득했습니다. 그 비밀은 지금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늘 무지개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말에도 굶은 일에서 좋은 면을 찾으라든지 ‘무지개 저편 어디’ 를 말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훨씬 좋은 것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분, 성경에서 무지개를 본 세 사람이 누구누군지 아십니까?”

선교사는 노아를 풍파 이후에 무지개를 본 사람으로 말했다. “어쩌면 여러

분 가운데는 지금 비바람 한가운데를 거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주님은 내 생각을 하기라도 하시는지 의심하면서 말이죠. 그 분을 신뢰하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이 무지개를 볼 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에 늘 충실하셨음을 깨닫는 그 날이 분명히 옵니다!”

선교사는 교인들에게 에스겔 1장을 펴보라고 했다. 그리고 비바람 한가운데서 무지개를 본 사람, 에스겔을 말하기 시작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암울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형편이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죄다 파괴된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보좌에 계신 분이셨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눈을 감고 안 본다고 해서 비바람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선교사가 말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서라도 여러분은 무지개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지개는 바로 비바람 한가운데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무지개를 본 성경의 세 번째 인물로 선교사는 요한계시록 4장 1-3절의 본문을 펴서 사도 요한을 가리켰다. “노아가 비바람 이후에 무지개를 봤고 에스겔이 비바람 한가운데서 무지개를 봤다면, 사도 요한은 비바람 이전에 무지개를 본 사람입니다. 봐도 무지개의 일부만 본 것이 아니라 아예 원을 통째로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즉,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달려있음을 본 것입니다.” 선교사는 요한계시록 6장으로 가서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말하면서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성경을 덮은 선교사는 열심히 귀기울여 듣는 교인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늘 비바람을 경험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야 모든 비바람을 그치겠죠. 그러니 여러분, 비바람이 닥치리라 예상하며 살아야겠죠.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무지개를 찾으라! 변치않는 하나님께 기대시기 바랍니다. 그 분은 어떤 때는 비바람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비바람 한가운데서 보여주시지도 모르죠. 또한 비바람 이전에 아예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치않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늘 무지개를 보여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집에 가면서 대처할머니는 생각했다. ‘흠뻑 영양분을 받아먹은 것 같은 기분, 이렇게 흡족한 기분은 왜일까? 이렇게 흡족한 기분은 왜일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평화롭고 기쁜걸까? 집에서 남편을 만나는 일도 겁이 안 나고 의사를 만날 일도 겁이 안나니 . . .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거지?’

대처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 제단에서 봉사하는 십대 학생들까지 이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간 기분을 느꼈다. 무슨일이 일어난 걸까? 물론 이날도 가르침이 있었다. 하지만 담임 목사는 늘 성경 지식만을 잔뜩 가르쳤다. 의지를 바꾸라는 도전 역시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 교

인들은 설교자가 도전한 바를 정말 원해서 실천하고픈 마음이 일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일이 무척이나 당연하고 자연스런 일이라 느꼈다. 이 선교사의 설교는 뭐가 달랐던 걸까? 그는 교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먹었던 것이다.¹³

위어스비는 이들이 행한 설교를 비교하며 이렇게 평한다.

설교사역에 관한 한 담임목사는 강단에 해골을 갖다 세우고 좌석엔 송장으로 가득차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도대체가 개요말고는 성도들이 씹고 자시고 할 꺼리가 들어 있지 않은 설교니 말이다. 반면 선교사는 개념과 이미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듣는 사람들의 귀가 눈이 되어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설교를 했다. 이렇게 진리를 보게 하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상상이 정화되고, 또 좋은 자양분을 공급받아 영적으로 흡족함을 맛볼 뿐만 아니라 깨달은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지만 내 생각에 대다수 교인들이 상상을 채워 주는 설교에 주려 있다. 오늘날 교회가 설교하는 것과 실제의 행동 사이엔 큰 괴리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상상의 기근이 빚어내는 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 . .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으로 되지 못하는 까닭은 ‘말씀을 듣는 행위’가 ‘말씀을 보는 행위’로 전환되지 못하는데 있다.¹⁴

이처럼 설교자와 청중의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하다. 청중은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사람에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현대는 인터넷과 영상매체의 발달로 급격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가 있어왔다.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인터넷망(World Wide Web)으로 연결되어 있고, 웹페이지에는 글과 그림과 정보와 동영상의 한 자리에 공존한다. 2007년 애플은 음성과 문자를 위주로 사용하던 휴대폰(mobil)에 인터넷을 묶어서

¹³ Warren W. Wiersbe, *Preaching & Teaching with Imagintion: The Quest for Biblical Ministry*, 이장우 역, *상상이 담긴 설교* (서울: 요단출판사, 1998), 79-84.

¹⁴ Ibid., 79-86.

스마트폰(smartphone)개념의 아이폰(iPhone)¹⁵을 출시하였다. 이제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환경이 구현된다. 2004년 개설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¹⁶ 웹사이트인 페이스북(facebook)과 2005년 2월 개설한 유튜브(YouTube)¹⁷는 4G¹⁸에 힘입어 금세기 최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성공신화를 썼다. 한국의 SNS는 카카오톡¹⁹ 등이 있다. 구글(Google)은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엔진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한다.

구글은 1998년에 'BackRub'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했다. 구글은 PDF, 포스트스크립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어도비 플래시 문서들을 포함한 웹 문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 구글 이미지 검색, 구글 뉴스그룹, 구글 웹 디렉토리, 구글 비디오, Froogle 서비스에서 이름이 변경된 상품 검색, 구글 맵, 구글 어스 등의 주요 검색 서비스가 있다.²⁰

스윗은 기독교의 미래는 세상과의 소통 방식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²¹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에 힘입어 발전한 기독교가 ‘구글’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대에 과연 세상과 얼마나 잘 소통할 수 있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¹⁵ 아이폰(iPhone)은 2007년 1월 9일, 애플이 발표한 스마트폰 시리즈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맥월드 2007에서 애플의 창업자 중 한명인 스티브 잡스가 발표했다. 아이폰의 초기 모델인 아이폰 2G는 2007년 6월 29일 오후 6시 미국 AT&T 대리점과 애플 매장에서 최초로 판매가 시작되었다.

¹⁶ Social Network Service는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 등이 대표적이다. 용어를 줄여서 ‘SNS’라 부르기도 한다.

¹⁷ 사용자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시청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동영상 공유 서비스로, 당신(You)과 브라운관(Tube, 텔레비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이다.

¹⁸네이버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 (2016년 2월 7일 접속). 무선 이동통신 규격. 2008년 국제 전기통신 연합에서 4G 규격을 정의하면서, 저속 이동 시 1Gbps, 고속 이동 시 100M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LTE 사용.

¹⁹ 카카오톡(KakaoTalk)은 주식회사 카카오가 2010년 3월 18일 서비스를 시작한 글로벌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이다

²⁰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2016년 2월 13일 접속). 구글은 검색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2004년 시작된 이메일 서비스인 Gmail 과 YouTube, 피카사, Google 사전, Google 리더, iGoogle, 기업 사용자를 위한 구글 앱스 등이 있다.

²¹ Leonard Sweet, ‘Let’s Tong Scriptura’ Seminar, 2014년 1월 13~17일. 당당뉴스 칼럼, 2014년 1월 18일 <http://www.dangdangnews.com> (2016년 2월 16일 접속).

“우리는 그 동안 구텐베르크의 인쇄 혁명의 영향을 받은 문자 문명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혹은 ‘글’ (word)을 신뢰하도록 훈련받았다”면서 “하지만 이제 우리는 글을 벗어나 성경의 이야기와 은유를 신뢰하는 방법을 배울 때”라고 밝혔다.²²

스윗은 지금 우리는 단어가 아닌 이미지와 은유, 그리고 상징과 이야기로 자신을 전달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²³ ‘무엇을 전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다고 대답할 수 있다. 설교의 역사에 있어 지금까지 설교자에게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었지만 이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커뮤니케이션이 잘되는 전달방법을 요구한다.

통(通)/내러포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의 필요성

스윗이 말하는 바 내러포(Narraphor)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경(성서)은 하나의 이야기이다. 이야기와 은유가 있는데 이를 합하여 내러포라고 부르는 바 성경기호학을 사용하여 이를 바르게 풀어낸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사용하신 PaRDeS(연역적, 귀납적, 가추적, 변환적)와 EPIC(경험, 참여, 이미지, 연결)이 있다. 이 내러포는 ‘하나님의 말씀 읽기’ 이고 집으로 말하면 창(Window)이라고 할 수 있다.

조병호의 통(通 Tong)은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본다. 이 한 권의 책을 전체와 부분을 함께 본다. 통통성경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통(通)성경은 첫째, 시간·공간·인간을 통(通)으로, 개인·가정·나라를 통(通)으로, 제사장 나라·5대제국·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7개 트랙과 7개 스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²² Ibid.

²³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527.

둘째, 성경을 파편화(fragmented books and multiple disconnected stories) 하지 않고 66권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One Story)로 모든 부모가 5세부터 20세 전 자기 자녀에게 쉽고, 재미있고, 이어지는 이야기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칠수 있는 성경을 말한다.²⁴ 성경을 읽고, 듣고 통독해야하는데 48시간 읽기(듣기)와 1년 10독(듣기)와 성경을 통독하면서 큐티를 할 수 있다. 그는 숲과 나무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동, 서양의 서로 다른 사고방식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가로축(공시)과 세로축(통시)으로 성경을 보는데 지금까지의 장르별 순서에서 역사순(시대순)으로 재배열하여 읽으면 하나님의 경륜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통(通 Tong)은 ‘하나님의 마음 읽기’ 이고, 집으로 말하면 방(Room)이라고 할 수 있다.

왜 통/내러포설교가 필요한가? 시대마다 선호되던 설교의 유형들이 있었지만, 청중과 의사소통방식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한다. 오늘날은 그 어느 시대보다 급격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우리는 메시지 전달의 유형이 다양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 시대는 글의 시대에서 구글로 대표되는 이미지의 시대가 되었다. 스윗은 설교자는 언어를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닌 이미지를 잘 다루는 사람²⁵이라고 했다. 설교의 핵심은 복음인데 이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청중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유형이 필요하다. 이에 적합한 유형으로, 내러포와 통을 합하여 새로운 설교의 유형인 통(通)/내러포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를 제시한다.

한국교회는 1885년 미국 장로교선교사 언더우드와 미국 감리교선교사 아펜젤러 인천항을 통해 입국한 것을 기점으로 하여 120년 세월동안 괄목할 만한 교회성장

²⁴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 브로셔, 성경통독원, 2015년.

²⁵ 2013년 11월 18일 스윗 교수 D. Min 강의.

을 이루었다. 김서택은 한국교회의 성장을 4단계로 나누어 말한다. 1단계는 농촌교회의 성장이다. 2단계는 인구이동으로 인한 도시교회의 성장이다. 3단계는 아파트 지역 중심으로 대형교회가 세워져 성장한다. 4단계는 신도시 형성과 교회이동으로 성장한 것이다.²⁶ 한국교회의 성장에는 설교가 있었다.

김서택은 말씀 중심의 교회성장에 대해 “설교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 . .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무엇보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교회가 자라기 시작한다. . . . 복음을 선포하면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교인이 늘게 되어 있다.”²⁷고 말한다. 그는 “이런 목회를 하다 보면 . . . 이미 있던 교인들이 말씀에 부딪쳐 한꺼번에 몇 명씩 떠나갈 때는 좌절감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말씀을 순수하게 증거하고 가르치다 보면, 하나 둘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생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생길 뿐 아니라 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 . . 말씀을 지속적으로 설교해 나갈 때, 무엇보다 설교자 자신이 말씀으로 은혜받고 말씀으로 자라며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된다. 거듭 말하지만 목회자가 자라면 교인들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다.”고 언급한다.²⁸

통/내러포설교는 말씀목회를 하려는 목회자에게 유용한 유형이 될 수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시대를 초월하시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인 동시에 이 시대에 적합한 설교의 유형으로써 목회자 본인과 청중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설교의 방법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 통/내러포설교가 1년동안 행해진 하나교회 청중들의 설문지 반응을 분석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²⁶ 김서택, *강해설교와 목회* (서울: 흥성사, 2002), 202-207.

²⁷ Ibid., 207-212.

²⁸ Ibid., 225.

제 IV 장

프로젝트 실행

교회의 상황

하나교회는 1996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정통) 산성교회¹ 에서 나온 교인들이 이구환장로(당시 안수집사)의 집에 모여 송구영신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되었다. 심상조장로(당시 안수집사)의 회사인 대유토건의 구 사무실²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1996년 6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779-19번지 미래빌딩 지하를 임대하여 설립예배를 드렸다.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정통) 한남노회 소속 하나교회가 설립되었는데 요한복음 17장 21~24절의 예수님의 기도 내용에서 ‘하나교회’ 라고 이름하였다.

요한복음 17:21~24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¹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52-56번지 소재.

²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51-5번지 소재.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여 초창기에 괄목할만한 양적성장도 있었고, 2002년 현재의 위치인 구로구 구로동 560번지 신도림 현대아파트 상가 3층³을 구입하여 이전하였다.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3년간 하나교회의 담임목사는 6명이 교체되었다. 평균 2년에 1명꼴이다. 개척 초창기에 양적 성장도 있었지만 그 후 평균 2년에 1번씩, 최종적으로는 9개월만에 담임목사가 교체되어 교회의 리더십이 상실되었다. 이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교회성장에 장애요소가 되었다.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장로후보인 안수집사는 많은데 비해 세례교인 수는 부족했다. 그 결과 교회는 당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미조직교회인채 13년이 지났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 당회 제 64조 당회의 조직

1.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2. 최초의 세례교인(입교인) 30인에 한하여는 장로 2인을 동시에 혹은 추후에 1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장로는 세례교인(입교인) 30인당 1인씩 증원할 수 있다.⁴

2008년 3개 교회가 합병하였는데 9개월만에 다시 원래대로 분할되었다. 하나교회 교인들도 벼랑 끝에 내몰린 절망감을 가지고 있지만 실낱같은 희망을 붙들고 다시 한 번 시작해보자는 43명의 교인⁵이 모인 교회에 2009년 3월 본 연구자가 부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설교에 4년간 매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셨다. 2012년 재적 세례교인의 수가 200명에 달하였고 출석인원이 평균 120명 이상이 되었다. 십일조헌금을 드리면서 순환하여 빠졌다가 참석하는 이들을

³ 도로명 주소, 구로구 새말로9길 45, 현대상가 3층 제 1호(구로동, 신도림현대아파트).

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헌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3), 192. 제 65조 당회의 폐지: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인도 없으면 1년 후 첫 노회부터 폐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입교인) 수가 30인 미달로 3년 경과한 후 첫 노회부터 당회가 폐지된다.

⁵ 제 102회 영등포노회보고서, 35-36, 참조, 하나교회 담임목사 청빙서류, 전교인 서명날인 명부.

포함하면 150명이 출석하였다.⁶ 이에 2013년 봄,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헌법에 따라 제 100회 영등포노회에 장로 5명 피택 청원 허가를 받았다.⁷ 2013년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에 장로임직식을 하였다. 개척당시 안수집사였던 교인들이 16년만에 장로 장립을 하는 감격스러운 날이었다. 연이어 첫 당회에서 본 연구자의 위임청빙을 논의⁸하여 2013년 2월 16일에 위임식을 하였다. 하나교회가 개척된 지 17년만에 미조직교회에서 조직교회가 된 것이다. 개척교회가 겪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13년 동안 6명의 담임목사가 평균 2년을 주기로 교체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침내 조직교회의 면모를 갖추게 된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안수집사 5명과 권사 8명을 피택하여 2014년 11월 추수감사절에 임직식을 하였다. 2013년 추수감사절에서 2014년 추수감사절까지 1년의 기간동안 하나교회에서 지난 16년동안 하지 못했던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과 담임목사 위임식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임직식과 위임식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전환점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2013~2014년 두 해동안 교회의 양적 성장은 현상유지에 머물렀다. 본 연구자는 교회가 미조직교회에서 조직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시점인 2012년~2013년 두 해에 걸쳐 교회에 세 가지의 제안을 하였다.

하나는 인근교회가 두 곳의 예배장소를 가지고 있다가 한 곳에서 예배하게 되면서 내놓은 예배당과 부지를 매입하자는 계획이었다. 이 제안은 운영위원회와 제직회를 거쳐 2주간 동안 새벽기도회 후 공동의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다. 다른

⁶ 하나교회 2012년 출석통계표.

⁷ 제 110회 영등포노회 보고서, 2013년 4월 30일, 43.

⁸ 제 1회 하나교회 당회록, 2013년 11월 24일.

제안은 은퇴를 앞둔 담임목사가 있는 멋진교회의 합병제외에 대한 것이다. 멋진교회는 1,157m² (350평) 부지에 3층 예배당 건물과 부속 건물이 있었다. 3층 예배당은 약 400석 규모로 리모델링을 하였고, 4차선 도로 옆 두 전철역의 중간으로 역세권에 위치한 본 교회와 유사한 교세의 교회였다. 부지매입을 하고 이전하면서 갠야 할 부채가 있었지만 한 교회의 예산은 이자로, 한 교회의 예산은 경상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나왔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회원들이 가서 그 교회를 둘러보며 당회원들을 만나보고 왔지만 운영위원회⁹에서 이 제안은 부결되었다. 세 번째는 교회가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991.7 m² (300평)의 공터를 매입하여 교회를 가건물로 건축하자는 제안이었다. 이 또한 부지가 세모로 된 땅이며, 좁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실행절차

한 편으로는 조직교회의 면모를 갖추고 나가고 있었으나 다른 한 편으로는 상가 3층 교회에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세 번이나 놓쳐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것은 본 연구자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 때 본 연구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심기 일전하여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2015년 한 해의 표어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정하였다.

고린도전서 3:5-9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⁹ 2012년 9월 운영위원회 회의록.

당회가 구성되지 않아 교회내규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회를 운영함.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통(通)/내러포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설교에 매진하는 이 프로젝트를 하나교회 청중을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일 낮 1, 2부 예배와 오후찬양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심야기도회에서 실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였다. 1년간 새벽기도회를 빠짐없이 인도하며, 매일 오전의 시간을 기도시간으로 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힘썼다.

실행과 분석

본 연구자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통(通)/내러포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설문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¹⁰

설문조사 방법

본 설문지는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설문에 응답하는 청중의 일반적인 인적사항을 알기 위해 6문항을 설문하였다. 둘째로 설교자와 청중의 상관관계와 통(通)/내러포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설교의 영향력에 대한 설문을 만들어 조사하였다.

이 조사의 목적은 설문대상자의 통(通)/내러포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 및 커뮤니케이션 정도와 설교가 지식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며 삶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

¹⁰ 2016년 2월 21일(주).

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본 설문지의 조사대상은 본 교회의 교인 가운데 20대에서 70대까지 각 연령대에 해당하는 교인과 직분을 고려하여 표본으로 20명을 선별하였다. 본 설문지는 2016년 2월 21일 주일에 2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거하였다. 본설문조사는 본 교회에 한정된 것이므로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설문지 분석

일반적 사항

아래의 (표 2)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청중의 일반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분석이다. 남·여 비율을 50:50으로 하였으며, 20대~70대 이상의 연령을 고루 분포하였으나 교회 직분을 고려하여 표본을 선정한 바 40대와 50대 그리고 60대가 많다.

<표2> 응답자의 인적사항

구분	항목	인원	백분율
성별	남	10	50%
	여	10	50%
연령	20대	2	10%
	30대	2	10%
	40대	4	20%
	50대	5	25%
	60대	4	20%
	70대이상	2	10%

학력	초등학교 졸업	1	5%
	중학교 졸업	1	5%
	고등학교 졸업	4	20%
	대학교 재학 또는 대학교 졸업 이상	14	70%
신앙연륜	모태신앙	4	20%
	초등학교 때부터	5	25%
	중·고등학교 때부터	4	20%
	대학교 때부터	0	0
	결혼 후부터	4	20%
	중년기 이후부터	3	15%
신급	세례/입교	20	100%
	유아세례	0	
	원입	0	
직분 (중복체크)	장로	2	10%
	안수집사	2	10%
	권사	1	5%
	서리집사	9	45%
	교사	4	20%
	성가대	3	15%
	남선교회장	2	10%
	여전도회장	2	10%

	구역장	2	10%
	전도사	2	10%
	청년회장	1	5%

교육정도는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이상이 70%(14명)로 고학력 교인이 많다. 신앙을 가진 시기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신급은 모두 세례/입교자(100%, 20명)이며 이는 맡은 직분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직분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남·여 서리집사, 은퇴 서리집사, 남선교회장, 여전도회장, 구역장,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교사, 청년회장, 전도사 등 여러 직분을 고루 분포하여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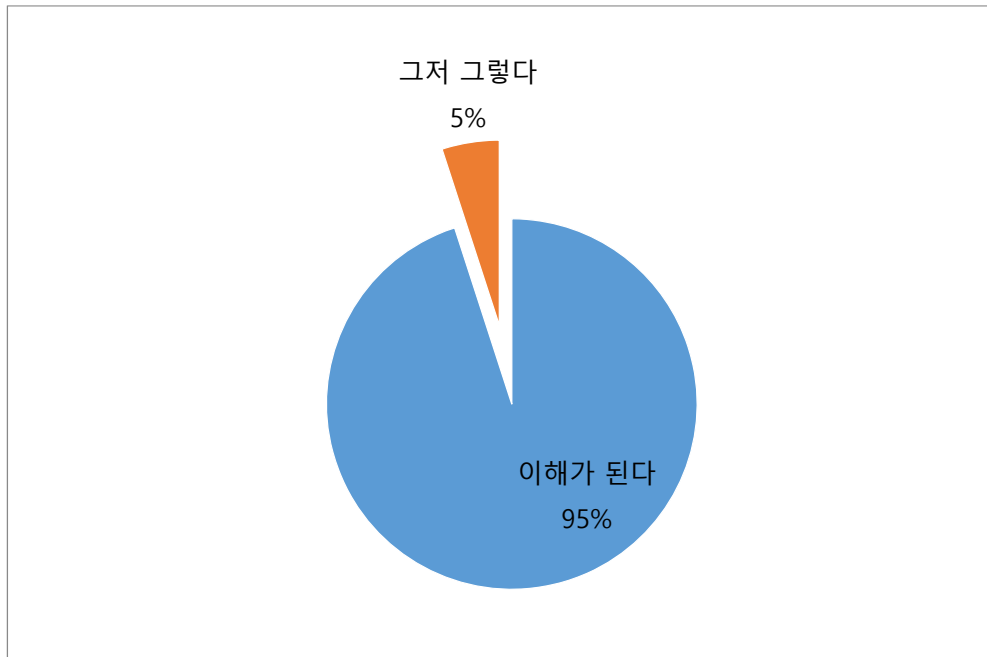
설문대상자의 통(通)/내러포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
및 커뮤니케이션 정도 조사

설문대상자의 설교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여 설교자와 청중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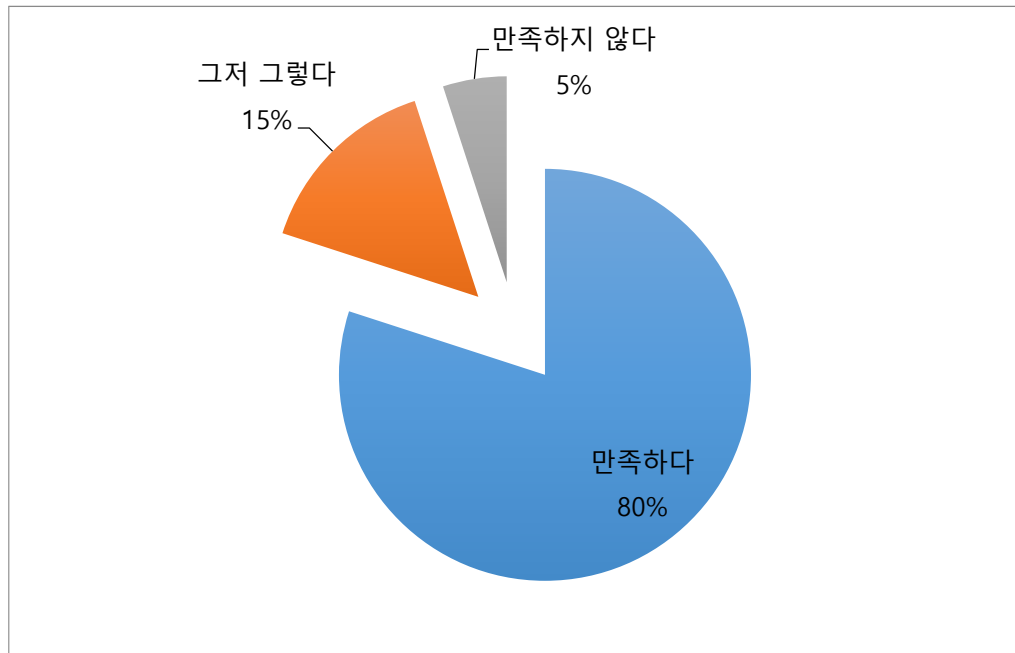
통(通)/내러포설교를 들을 때의 이해도 조사

설교를 들을 때의 이해도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그저 그렇다(1명, 5%)는 청중은 1명뿐이며, 거의 대부분(19명, 95%)이 이해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성경을 통으로 보고, 이야기와 은유를 사용한 통(通)/내러포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는 20대의 청년부터 70대 이상의 노인 즉,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분명하게 이해되는 설교의 유형임을 잘 나타내 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표3> 설교에 대한 이해도



<표4> 설교에 대한 만족도



설교에 대한 만족도와 청중의 태도가 설교를 듣는데 미치는 영향 조사

설교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다는 청중이 많고(16명, 80%), 보통인 청중(3명, 15%)과 만족하지 않다는 청중(1명, 5%)이 있으나 전혀 만족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무했다.

이 응답에서 흥미로운 것이 있다. 설교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도 ‘설교가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되며, ‘설교를 듣고 난 후 자기 자신에게 대체로 변화가 일어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결국 만족도에 상관없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통(通)/내러포설교 유형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자는 모두 ‘청중의 태도가 설교를 듣는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기에게 생긴 고민문제’와 ‘자기 자신의 집중력 부족이 설교를 들을 때 장애요소가 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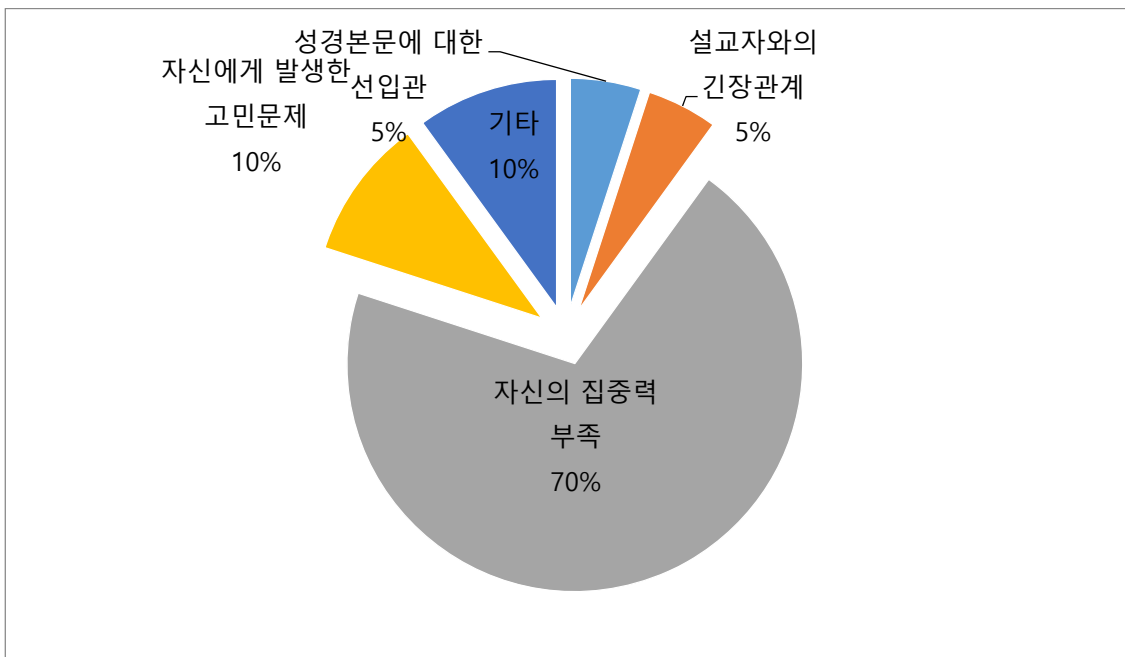
‘만족하지 않다’는 응답자도 ‘청중의 태도가 설교를 듣는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설교를 들을 때 장애요소는 성경본문에 대한 선입관’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응답자는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는 데 성경 지식이 오히려 설교를 듣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전체 응답자가 ‘청중의 태도가 설교를 듣는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설교가 설교자의 책임이라는 관념에서 이 통계는 청중에게도 책임요소가 있다(20명, 100%)는 것을 청중들이 인식한다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5> 설교를 듣는 청중의 태도가 설교에 미치는 영향



<표6> 설교를 들을 때의 장애요소



청중이 설교를 듣는데 장애요소에 대한 조사

이 응답은 설교의 만족도와 연관이 있다. 설교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설교자와 긴장관계’와 ‘자신에게 발생한 고민문제’가 설교를 듣는데 장애요소이며, ‘만족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장애요소는 성경본문에 대한 선입관’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응답은 설교자와 청중의 책임이 공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응답이다. ‘기타’ 항목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20대이며, ‘생각의 차이’와 ‘그 어떤 것도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인들의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20대들은 ‘설교의 만족도’에 있어서 ‘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설문대상자에게 통(通)/내러포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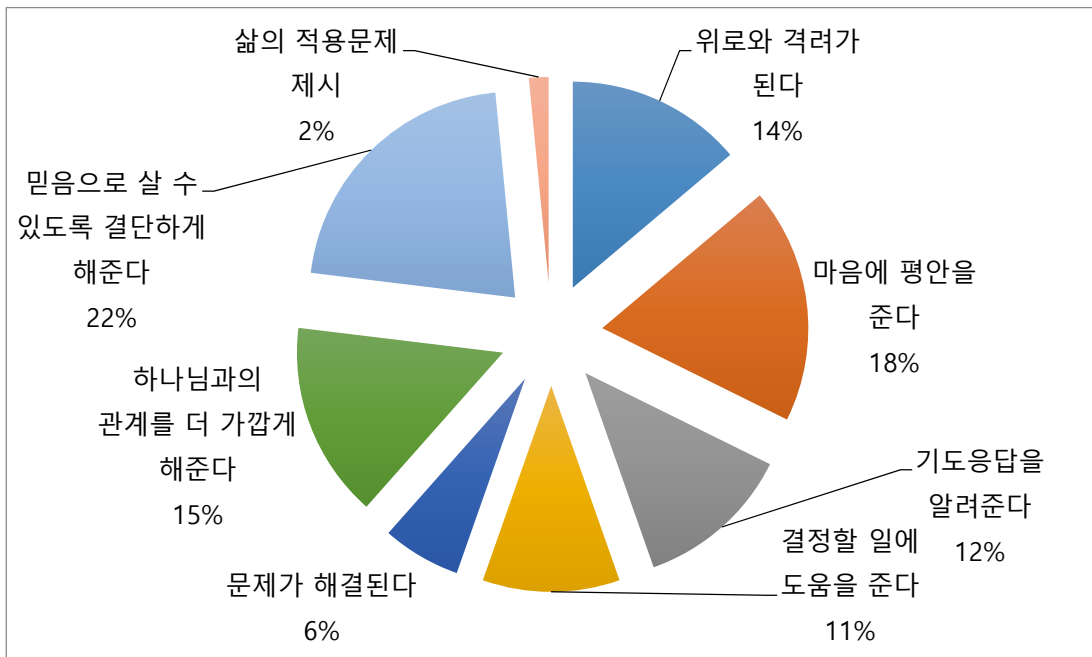
이 조사는 설교가 청중들에게 지식으로 전달되는지, 아니면 그들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 기존의 가치관에 변화가 있고, 삶에 실천의 동기가 생기는지를 알아보려는 데 있다.

<표7> 설교가 삶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응답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조사
 본 연구자에게 있어서 이 응답은 놀랍다. 설교에 ‘만족이 된다’ 든지 ‘그저 그렇다’ 든지 ‘만족하지 않다’ 고 하든지에 상관없이 모두 설교가 자신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 고 응답한 것이다.

<표8> 설교가 무엇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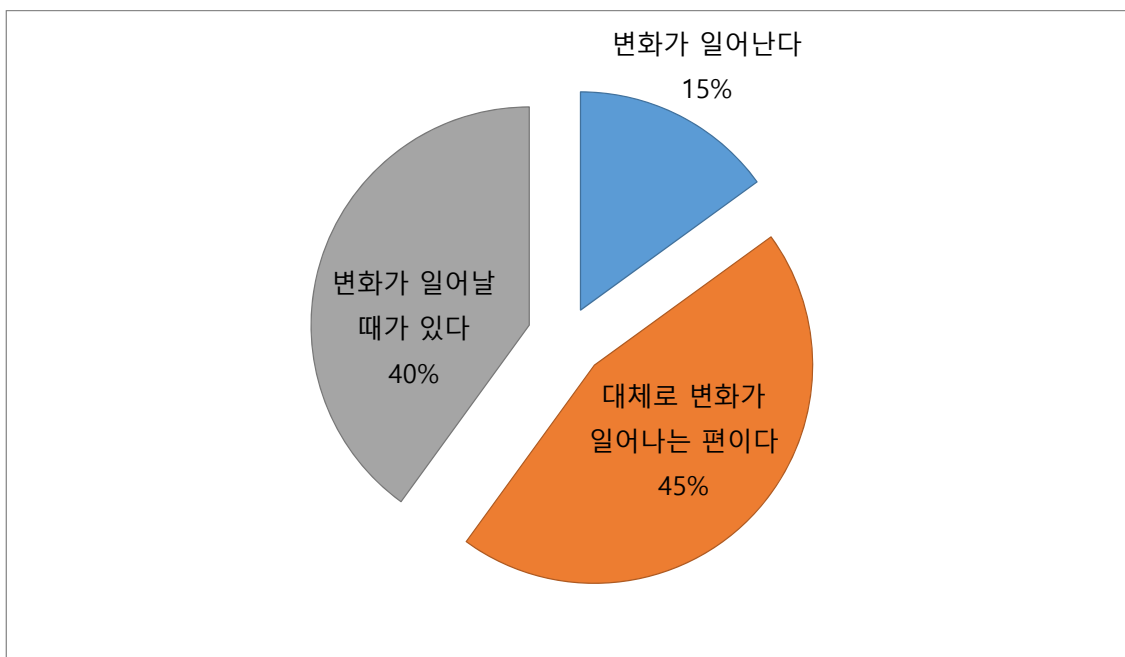


설교를 들으면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조사

8개 항목을 중복체크하도록 설문을 하였다. 총 65개 항목에 중복체크하여 이를 백분율로 나누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해준다(14명, 22%), 마음에 평안을 준다(12명, 18%),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해준다(10명, 15%), 위로와 격려가 된다(9명, 14%), 기도의 응답을 알려준다(8명, 12%), 결정할 일에 도움을 준다(7명, 11%), 문제가 해결된다(4명, 6%), 삶의 적용문제 제시(1명 2%).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해준다는 응답이 최고로 많았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해준다는 항목까지 응답수가 많은 것을 볼 때 신앙생활에 있어 설교의 중요성을 청중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개인적인 항목은 상대적으로 적은 응답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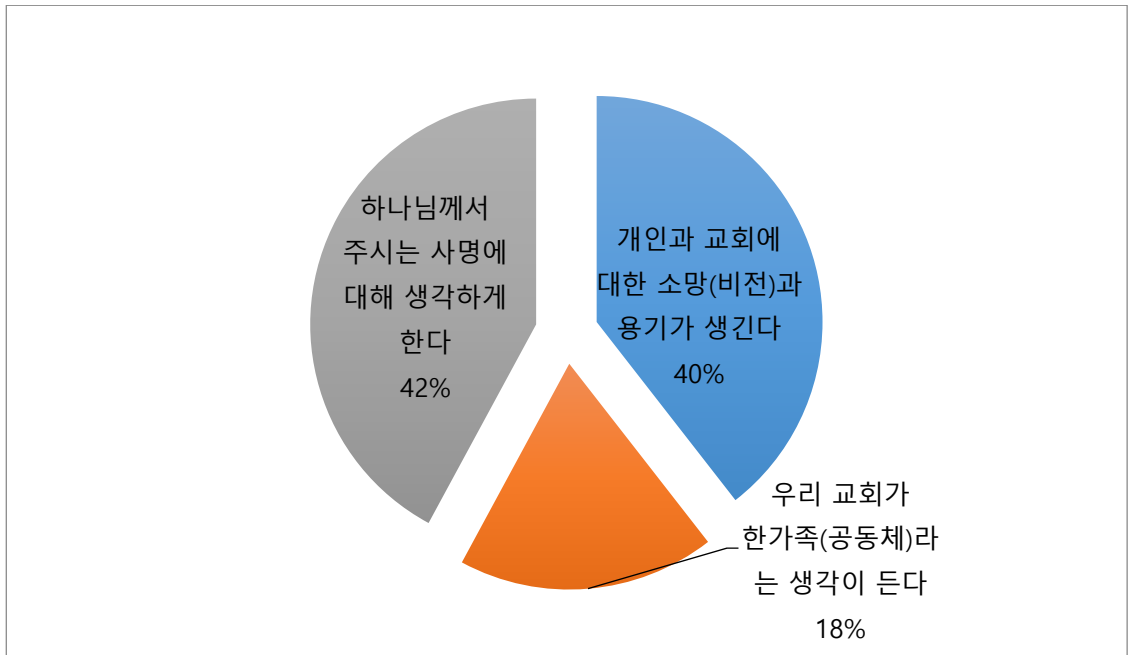
<표9> 설교를 듣고 난 후 청중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조사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조사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또한 흥미로운 응답이다. 설교의 이해도와 만족도 조사에서 그저 그렇다거나 만족하지 않다는 사람도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응답한 것이다.

<표10> 설교를 듣는 청중의 비전, 공동체 의식과 사명에 대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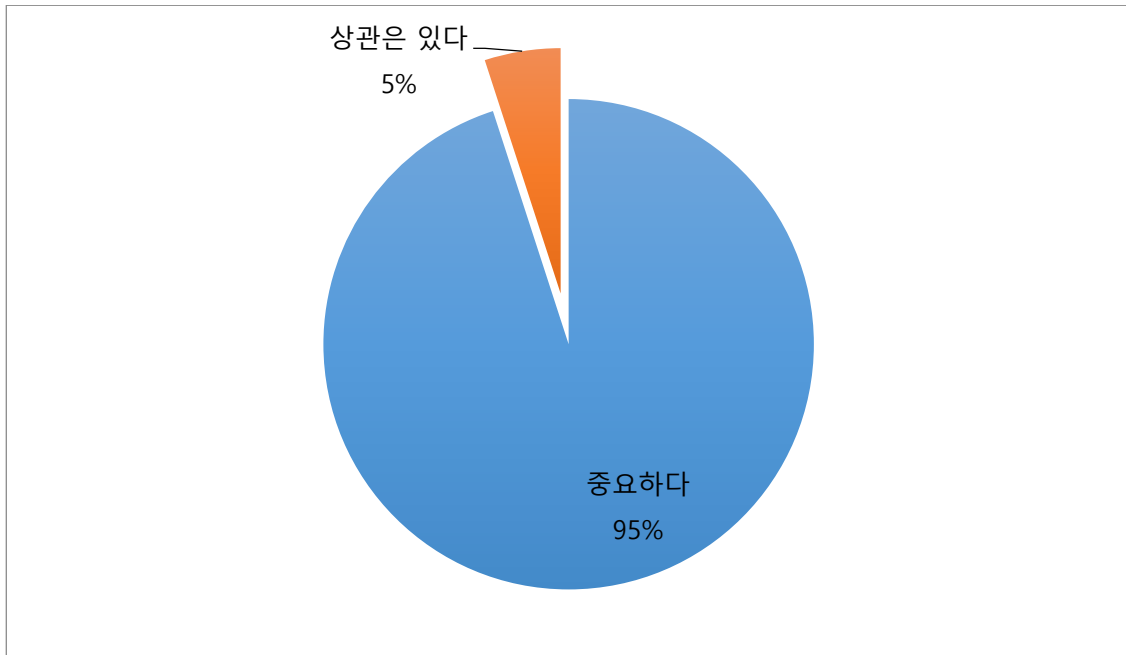
설교를 통한 비전, 공동체 의식과 사명에 대한 조사

직분을 고루 분포하였지만 책임이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16명, 42%). 개인과 교회에 대한 비전과 용기가 생긴다는 응답도 거의 비슷했다(15명, 40%). 이에 비해 교회가 한가족(공동체)라는 생각이 든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7명,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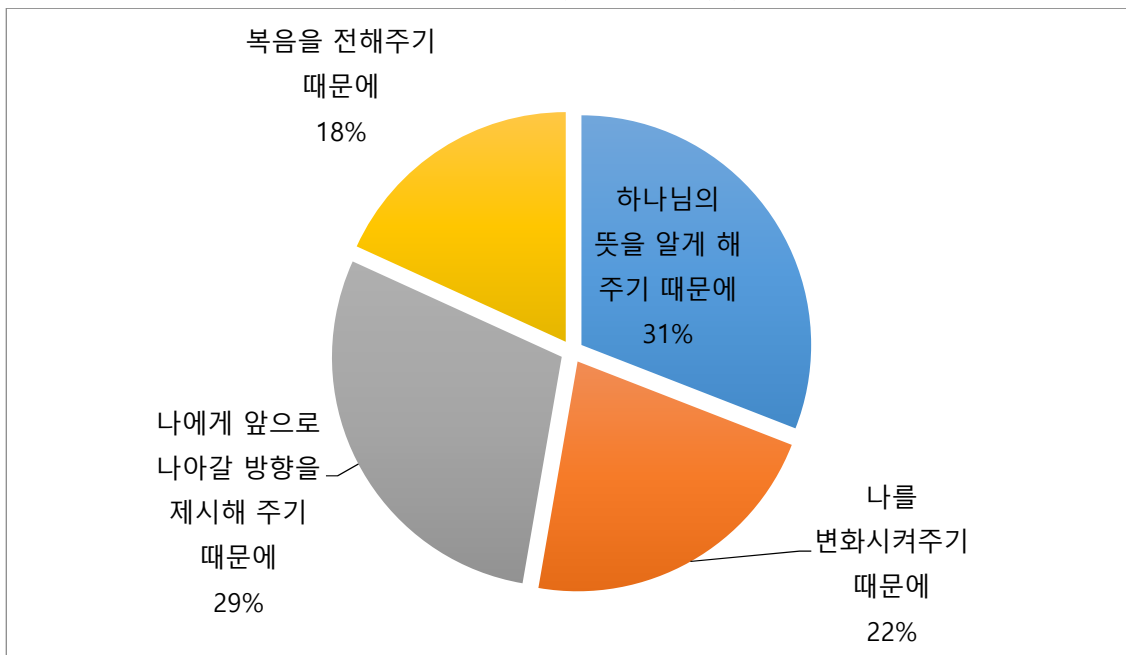
설교가 본 교회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조사

상관은 있다는 응답(1명, 5%)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설교가 교회성장에 중요하다고 응답했다(19명, 95%).

<표11> 설교가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



<표12> 설교가 중요한 이유



설교가 중요한 이유에 대한 조사

설교가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응답(31%)과 자기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29%)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복음을 전해주기 때문(18%)이라는 응답과 합산하면 78%가 된다. 이것은 설교가 청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실행에 대한 평가

본 프로젝트의 평가는 통(通)/내러포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 이 조사의 목적은 설문대상자의 통(通)/내러포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 및 커뮤니케이션 정도와 설교가 지식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며 삶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었다.

청중의 이해도와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이해도와 만족도에 상관없이 삶에 도움을 주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응답하였다. 통(通)/내러포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가 청중들의 삶과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고 비전과 사명 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설교에 있어 설교자의 책임만이 아니라 청중의 태도가 책임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도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0대에서 70대 이상의 청·장년 각 연령대와 장로, 안수집사, 권사, 남·여 서리집사, 은퇴 서리집사, 남선교회장, 여전도회장, 구역장,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교사, 청년회장, 전도사 등 여러 직분을 고루 분포하여 표본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의견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전체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 V 장

결 론

요약 및 평가

본 논문에서는 교회의 청중에게 설교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먼저 레너드 스윗의 내러포와 조병호의 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내러포와 통의 연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3> 통과 내러포

	통(Tong, 通)	내러포(Narraphor)
1	성경(성서)은 한 권의 책이다	성경(성서)은 하나의 이야기이다
	(1) 시간 · 공간 · 인간을 통으로	
	개인 · 가정 · 나라를 통으로	
	제사장나라 · 5대제국 · 하나님나라를 통으로	
	(2) 66권 전체를 파편화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로	
전체(숲)와 부분(나무)를 함께 봄	이야기(Narrative)와 은유(Metaphor)	

	동·서양의 사고방식이 조화를 이룸	성서기호학(Bible semiotics)사용
	가로축(공시)과 세로축(통시)을 함께 봄	EPIC(경험-참여-이미지-연결)
	장르별 순서에서 역사순(시대순)으로 재배열하여 읽음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 PaRDeS(연역적, 귀납적, 가추적, 변환적)
	성경통독: 48시간 1독과 1년 10독(청)	
2	하나님의 마음 읽기	하나님의 말씀 읽기
3	방(Room)이라고 할 수 있음	창(Window)이라고 할 수 있음

왜 통/내러포설교가 필요한가? 시대마다 선호되던 설교의 유형들이 있었지만, 청중과 의사소통방식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한다. 오늘날은 그 어느 시대보다 급격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우리는 메시지 전달의 유형이 다양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 시대는 글의 시대에서 구글로 대표되는 이미지의 시대가 되었다. 설교의 핵심은 복음인데 이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청중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유형이 필요하다. 이에 적합한 유형으로, 내러포와 통을 합하여 새로운 설교의 유형인 통(通)/내러포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를 제시하였다

하나교회는 본 연구자가 부임할 때까지 13년간 6명의 담임목사가 평균 2년을 주기로 교체되었다. 6번째 담임목사는 임기가 9개월이었다. 3개 교회가 합병하여 한 교회가 되었으나 9개월만에 다시 흩어져, 마음의 상처로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이 겨우 다시 모인 교회였다. 이런 상황에 부임한 연구자가 설교에 주력하면서 교회가 성장하였고, 개척 후 16년만에 미조직교회에서 조직교회로 세워졌고 담임목사가 6년

동안 시무하면서 위임식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약을 위한, 상가교회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변화의 시도가 3번이나 부결되면서 2년간 정체과정을 겪었다. 고심의 시간을 보내다가 심기일전하여 다시 1년간 통(通)/내러포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설교가 청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각 연령대와 직분을 고려하여 고루 분포하여 전 교인의 의견이 수렴되게 하였다. 설교가 지식으로만 전달되지 않고, 기존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실천동기가 생기는지에 대해 설교자와 청중과 교회공동체의 변화, 동기부여, 비전 등 3개 항목으로 나눈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자들을 반응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통(通)/내러포설교의 유익한 면과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청중의 이해도와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이해도와 만족도에 상관없이 청중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응답하였다. 통(通)/내러포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가 청중들의 삶과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며, 비전과 사명 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제 계속하여 통(通)/내러포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를 통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비상(飛上)할 수 있는 날을 꿈꾼다. 설교에 있어 설교자의 책임만이 아니라 청중의 태도가 책임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도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통(通)/내러포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는 이미지시대의 청중들, 남녀노소 모두에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설교의 핵심인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 이 유형을 제시한다.

제언

이 논문은 통(通)/내러포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가 청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 설교가 청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무엇보다 본 연구자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말씀의 은혜가 있었다. 설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 복음과 설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 아울러 큰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 통(通)/내러포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를 하려면 다른 어떤 유형의 설교보다 설교자의 준비가 필요하다. 해돈 로빈슨은 “우리가 연구하지 않는 이상 설교자 앞에 하나님의 진주를 던져주지 않는다.”¹ 고 했다.

본 연구자는 1년간 통(通)/내러포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를 한 후에 새해의 목표를 2가지 정하였다. 성경통독을 하는데 1년 10독과 하루 24시간의 1/10을 기도시간으로 하려는 계획이다. 통(通)/내러포설교(Tong/ Narraphor Preaching)를 1년동안 하면서 본 연구자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진일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성경통독과 기도 외에 ‘성경과 5대 제국’²은 물론이고, 역사서를 옆에 두고 성경과 함께 보아야 한다. 내러포 또한 마찬가지이다. 통(通)/내러포설교(Narraphor Preaching)는 현재진행형이다.

하나교회의 담임목회자인 본 연구자와 함께 하나교회의 모든 것도 현재진행형이다.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가 바둑 대국을 시작하는 날³ 이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미생’ (未生)⁴을 생각한다. 미생의 뜻은

¹ Haddon Robinson & Craig Brain Larson, eds., *Biblical Preaching: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s*, 전의우 외 5인 역, *성경적인 설교 준비와 전달* (서울: 두란노, 2006), 56.

²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2).

³ 2016년 3월 9일, 서울 포시즌스호텔.

아직 완전하게 살아있지 못한, 또는 그런 상태. 다시 말하면 아직 생존의 여지가 남아있는 바둑돌을 말한다. 미생(未生)이 완생(完生)⁵이 될 때까지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심정으로 뚜벅뚜벅 걸어간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

‘미생’ (未生)은 윤태호작가가 다음 웹툰에 2012년 1월부터 연재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2012년 9월 위즈덤하우스에서 단행본이 발간되었다. 2014년 10월 17일 tvn에서 드라마를 제작하여 방영하였다. 미생은 웹툰에서 주인공이 자기를 빗대어 한 말이다.⁶

미생(未生)- 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 바둑에서 집을 두 개 이상 있어야 ‘살아있다’ 라고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집을 갖기 위해, 평생을 힘겹게 살아가지만 두 집 내고 안정을 꾀하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겨우겨우 돌 하나 더 잇는 삶이 어느 덧 뒤돌아보면 대마가 되어 포기도 쉽지않게 되지요. 겨우 두 집이라도 내기 위해서, 살아있기 위해서, 자신의 한 판 바둑(삶)을 승리하기 위해서 터벅터벅 한 수, 한 수 돌을 잇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⁷

설교에 매진하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였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다. 기호학에 관한 연구는 다음 과제로 남긴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한 우리교회는 평신도의 훈련 등 힘써야 할 것도 많다. 설교사역과 함께 교회의 부족한 부분은 계속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⁴ 바둑용어, ·곤마: 살아남기 힘든 바둑돌, 대마: 완생마는 아니지만 덩치가 커서 쉽게 죽지않는 바둑돌, 사석: 이미 죽은 바둑돌.

⁵ 바둑용어, 완생마: 특정한 돌들에 대하여 상대방이 어떤 수를 두어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돌들이 독립된 두 집을 가지고 있거나 상대방의 어떤 착수에도 독립된 두 집을 만들 수 있다면 그 돌들은 완생이다. 단, 예외적으로 ‘빅’은 집이 없어도 완생인 것으로 한다.

⁶ 나무위키, <https://namu.wiki/w> (2016년 3월 9일 접속)

⁷ 윤태호, 다음웹툰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er/15039> (2016년 3월 9일 접속).

부록 I . 설문지

찬미 예수!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설문에 협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본 교회 담임목사의 드류대학교 목회학 박사 논문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설교와 청중의 반응」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정답은 없으므로 성도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1개만 답하시면 되지만, (중복체크)라고 표시되어 있는 질문은 여러 개를 중복 체크 하셔도 됩니다. 이 설문지는 양면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설문지의 인적사항은 무기명으로 되어 있으며, 응답 내용은 통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논문을 쓰는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작성하신 설문지는 함께 나누어 드린 봉투에 넣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2016년 2월

설문담당자: 문병재

연 락 처: 010-8885-9106

I. 다음은 성도님의 '일반적 사항' 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의 ()안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도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 () ②여 ()

2. 성도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⑥70대이상()

3. 성도님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까?

①모태신앙() ②초등학교 때부터() ③중·고등학교때부터()

④대학교 때부터() ⑤결혼 후부터() ⑥중년기 이후부터()

4. 성도님의 신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세례/입교 () ②유아세례() ③원입()

5. 성도님의 직분은 무엇입니까?(중복체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 교사() 성가대() 구역장()

은퇴 서리집사() 남선교회장() 여전도회장() 청년회장() 기타()

4. 성도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초등학교 졸업() ②중졸 () ③고졸 () ④대재 또는 대졸 이상 ()

- ①도움이 된다() ②그저 그렇다()
 ③도움이 안된다() ④전혀 도움이 안된다()

6. 설교를 들으면 성도님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십니까? (중복체크 가능)

- ①위로와 격려가 된다() ②마음에 평안을 준다()
 ③기도의 응답을 알려준다() ④결정할 일에 도움을 준다()
 ⑤문제가 해결된다()
 ⑥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해준다()
 ⑦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해준다()
 ⑧기타(그 외 도움이 되는 내용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7. 설교를 듣고 난 후 나에게

- ①변화가 일어난다() ②대체로 변화가 일어나는 편이다()
 ③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다() ④변화가 없다()

8. 설교를 들으면(중복체크 가능)

- ①개인과 교회에 대해 소망(비전)과 용기가 생긴다()
 ②우리 교회가 한가족(공동체)라는 생각이 든다()
 ③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9. 설교는 본 교회의 성장에 관하여

- ①중요하다() ②상관은 있다()
 ③그저 그렇다() ④중요하지 않다()

10. 설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①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기 때문에()

②나를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③나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④복음을 전해주기 때문에 ()

⑤기타(그 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 II. 참여자 인터뷰

1. 강모연(여, 52세, 자영업)

제가 졸업한 여고는 미션스쿨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 자원해서 진학한 학교가 아니라 지역의 학교인데 그 학교가 기독교학교였습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채플에 참석해야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고를 졸업한 후 기독교와는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하게 알고 지내는 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모연아, 우리교회에서 예수사랑 큰 잔치를 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어. 내가 너를 초청하는데 나와 함께 우리교회 한 번 가보지 않겠니?” 언니와 같이 운동도 하면서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체면을 세워주려고 한 번 다녀가려는 마음에 하나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그 날따라 이상하게도 저를 쪽집게로 꼭 짊어서 말하는 것처럼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몇 번만 더 교회에 나갔는데 예배시간마다, 설교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자꾸 났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이런 경우에 맞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눈물이 계속 납니다.

작은 딸 아이의 진로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한 자리에서 주일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딸의 이야기를 하였지요.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부모는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우리 아이는 미술을 원했습니다. 미술공부는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중 3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여서 1년동안 공부하고 예고에 진학한다는 것은 어렵고 무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원하는 자기의 길이기 때문에 결단을 하고 학교공부와 미술학원 다니는 일을 병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년 동안 연필을 얼마나 많이 깎았는지 모릅니다. 학교

를 마치면 미술학원에서 밤늦게까지 데생과 실습을 하고 집에 오면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를 하는 작은 아이가 안스러웠습니다. 대입시험을 준비하듯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아이를 뒷바라지하면서 직장일과 가사일을 병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요, 고달픈 내 손을 꼭 잡아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설교시간마다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낮에도 교회에 나가 예배당 한 쪽 창문을 열어놓고 햇빛이 들어오는 자리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선 친한 언니를 통해 저를 부르시고,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이를 통해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이는 비록 1년 공부를 했지만 예고에 합격하였습니다.

고교 3년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미술공부를 했지만 중 3에 시작한 우리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실력을 키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수능시험을 치는 날 하루종일 예배당에서 기도하며 돌이켜보니 3년의 세월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지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지만 아이는 서울의 Y대학에 장학금을 받는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알아듣기 쉽도록 성경내용을 이야기로 들려주시는데 나중에 보면 나도 모르게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가는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면서 주일예배를 드리다보면 어느새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저 잘 알지 못하고 나왔던 때가 엇그제같은데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성도들 앞에 서서 떨리기는 해도 제법 대표기도도 할 줄 아는 서리집사도 되었고, 성경을 읽고 설교시간에 은혜받은대로 삶에 실천하려고 애쓰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소지을

때도 있습니다.

큰 아이가 군에 있을 때 겨울인데 큰 아이의 내무반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붙들리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이 제 속에 들어와서 평안해졌습니다. 추운데 떨어져 약간의 감기증상은 있었지만 불이 난 사건은 잘 무마되었고 복무기간을 마치고 제대를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힘을 주셨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저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설교시간마다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 사랑이 감사해서 자꾸 눈물이 나는 것은 멈출수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2. 유시진(56세, 회사운영)

제가 처음 하나교회에 올 때는 무덤덤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증조모께서 예수를 믿으시고 고향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신앙이 어머니에게 이어졌습니다. 성경책이 다 닳도록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늘 기도로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독실한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세례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미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람을 잘못 만나 모든 기반을 잃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 후 이상하게 늘 배가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정밀진단결과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안해본 것이 없다고 할 만큼 갖은 수를 다 써 보았습니다. 심지어 많은 돈을 들여 굶도 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

전히 배가 아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교회를 가보라고 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언니의 전도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체면도 세워주고 교회에 다닌 기억도 있어서 한 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하지않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기만 했는데 그 날 배 아픈 것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고, 무슨 수를 써도 낫지 않았던 복통이 나은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쉽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아내는 화장이 지워지는지도 모르고 옆에서 한 시간동안 울고 있습니다. 이 때부터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함께 나갔습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분은 어머니였습니다. 저를 위해 평생동안 기도하신 열매가 맺힌 것라고 했습니다. 눈 수술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겹쳤을 때도 한 쪽 눈에 안대를 한 채 새벽기도회에 나갔습니다.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그 친구도 내 체면을 세워주려고 나왔다가 저처럼 주일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 아이들까지 온 식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복통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힘을 쓴 것도 아니고 평소와 똑같이 회사일을 했을 뿐인데 매출이 2배나 올라갔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2배씩 오르니 저도 놀라고 온 회사가 놀랐습니다. 딸을 위해 기도할 때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갑작스럽게 건강상태가 안 좋아져서 응급실로 갔다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면회는 제한되고 주변의 사람들은 식물인간 상태이거나 산소마스크를 낀 환자들이었습니다. 면회를 온 사람들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의식이 있었기에 혼자 있는 밤이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설교시간

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아내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교우들이 함께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회진을 온 담당의사가 일반실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상태가 좋아지긴 했지만 퇴원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이니 경과를 두고 보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실에 내려온 것도 놀라운데 하루 만에 또 담당의사가 상태가 좋으니 퇴원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안이 병병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심방을 온 목사님께 그동안의 소회를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아내는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좋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부록 III. 세미나

1.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

- 1)일시: 2007년 5월 22일
- 2)장소: 서울 잠실체육관
- 3)강사: 레너드 스윗, 조병호
- 4) 강의 내용(집행부에서 제공한 소책자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레너드 스윗

(1)포스트모던에서의 EPIC 방식(The EPIC Directions of Postmoderns)

Experiential: 경험성

Participatory: 참여성

Image-Rich: 이미지 중심성

Connected: 연결성

교회는 이 시대 안에서 급진적으로 변해야만 한다. 모더니티에서 포스트 모더니티로 변화하는 한가운데, 교회는 모더니티에 의해, 모조리, 전부 지배받고 있다. 교회는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 모던 유형으로 고착화되었다. 교회는 또한 기독교 전통을 구현하고 실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고차원적인 모더니티의 패턴 속에 갇혀 버렸다. 포스트모던 문화 속에서 표류하는 교회를 위한 대책을 EPIC모델을 통해 제시해본다.

Experiential-E는 경험성이다.

"모던은 삶을 파악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은 삶이 무엇인지를 경

험하기를 원한다. 특히, 그들 자신을 위한 삶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 징후들은 문신, 테마 레스토랑, 시험 운전의 문화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교회도 그렇게 될 것인가? 전통적 기성교회는 '문자와 원칙'의 포로가 되어있다. 그러나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새로운 경험경제사회에서 교회가 치료자의 역할, 이야기가 넘치는 공간으로의 역할, 평화조정자의 역할, 콘텐츠 제공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가능성이 있다. 포스트 모던은 이성에서 경험으로 나아간다.

Participatory-P는 참여성이다.

교회가 경험적이라면 참여적이라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사실이다. 포스트 모던 세상에서 권력과 권위는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였다. 이베이, 가라오케의 인기, 상호작용의 비디오 게임이 뜨면서 수동적인 텔레비전의 인기가 감소한 것이 그 실례이다. 사실 참여와 더불어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권력의 공유를 볼 수 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화적인 설교, 친교의 성례전, 인터넷 교회는 참여성이 구체화되는 예증들이다. 포스트모던은 대표성으로부터 참여성으로 나아간다.

Image-Rich-I는 중심성이다.

NIKE의 dangerous tag filtered 모양의 상표, 영화와 비디오 게임의 점점 늘어나는 폭력적인 이미지까지 '이미지가 넘쳐나는' 포스트모던의 많은 문화적 현상들의 실례이다. 엠블럼이나 이미지로 추상적인 컨셉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사회의 경향이다. 사회 속에서 복음을 각인시키고 인식시키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창조하라. 포스트모던 사회는 메타포를 갈망하며, 이것이 교회의 전문적 영역이 되어야 한다. 포스트모던은 문자기반에서 이미지 중심성으로 나아간다.

Connected-C는 연결성이다.

역설적이지만 개인주의의 추구는 연결성을 위한 갈망의 장(場), 민족이나 국가가 아닌 선택적으로 연결된 공동체로서 이끈다. 시장에서 교회는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상품을 제공한다. 예는 얼마든지 있다. 인터넷에서 열광적인 팬 층을 창조할 수 있는 음악 그룹을 만들면서까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원한다. 다시 말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나를 대접하라(요13:34)'는 다른 어느 구절보다 절절하다. '성경'은 명제나 프로그램, 그리고 원리에 관한 책이 아니다. 성경은 관계에 관한 책이다. 성경은 연결성으로 들어가게 한다. 포스트모던은 개인주의로부터 '개인적인 공동체(Indivisual-Communal)'로 나아간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친다면, 물리적 세상에서 영적인 실체를 반향 시킨다는 것이다. '반향 시킨다는 것'은 단지 그 자체에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차원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적인 삶은 단지 흥미 있는 종교적인 사상, 혹은 천국에서의 안식처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삶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맛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삶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소년기 이래로 80마일 이상 더 여행한 적이 없다.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이 작은 스케일의 삶을 살았다고 비난한 적이 없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아주 작은 행동이나 아주 단순한 이야기도 거대한 스케일도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 위에 사셨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실체가 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느 누구도 가져본 적이 없는 큰 열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

EPIC적 삶은 네 가지의 필수적인 요소 위에 세워진다: 경험, 참여, 의미로 공동치는 이미지, 그리고 연결. (1)복음의 언어를 차용하는 미국 혹은 (2)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열망하는 크리스천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겠는가?

기업의 세계가 '복음의 선포'가 가지는 중요성과 영향력을 감지할 수 있다면,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삶, 즉 올바른 생활에 몰두했던 시대에 잃어버렸던 삶을 되찾을 수 있다.

(2) APC교회에서 MRI교회로(from APC Church to MRI Church)

Missonal: 선교적 교회

Relational: 관계적 교회

Incarnational: 성육신적 교회

그동안 교회는 Actional(유인적), Propositional(명제적), Colonial(식민지적)교회였다. 그러나 21세기 교회는 APC교회가 아니라 MRI교회이다. 두 유형 중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는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각각의 유형은 각각의 시대에 유효했던 방식이다.

a. APC교회

A: 유인적 교회의 초점은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고 머물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과 의사결정이 사람들의 요구와 선호를 만족시키는 시도로 이루어진다. 어린이 프로그램, 예배형식, 성전의 색깔 등, 초점은 사람들을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머물게 하는 것이다.

P: 명제적 교회의 초점은 옳고 바르게 되는 것이다. 근자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원조이다. 어떤 문제에서든지 논리적 합리적이 되는 올바른 입장이나 답변이 있다는 믿음이다. 이 경향의 목적은 자신들의 입장이 정설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확신시키는 것이다.

C: 식민지적 교회의 초점은 유인적으로 성공적이고 명제적으로 올바른 유형을 재생산 하는 것에 둔다. 체인 영업 모델, 맥도날드 철학, 목표는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유형을 모형으로 복제물을 재생산 하는 것이다.

b. MRI교회

M: 선교적 교회의 초점은 공동체, 사람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제자를 삼으려 할때 유인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에게로의 유인이지, 교회, 건물, 프로그램 따위의 유인이 아니다. 대위임이 사명선언이다.

R: 관계적 교회의 초점은 사람들에게 교리의 정통성을 확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시킴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학습의 초점은 이웃과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둔다.

I: 성육신적 교회의 초점은 예수님을 따라 복음이 되고 세상에서 복된 소식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사람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는 것에 강조점을 둔다.

Missional-M은 선교적 교회를 말한다. 성도의 감수 추세를 막고자 한다면 교회와 개인 성도들은 좀 더 선교적이 되어야 한다. 마틴 로빈슨(Martin Robinson)과 드와이트 스미스(Dwight Smith)는 그들의 책 '세속의 침입(Invaliding Secular Space)'에서 서유럽과 북미를 주도하는 교회의 현 상황을 아주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교회 성장을 위한(열린예배 따위를 통해) 유인적 교회모형은 퇴조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저자들은 제목이 말해주듯이 세속사회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야말로 퇴조의 경향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최대의 희망이라고 믿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적대적 환경 속으로 들어갔던 본래의 의지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곧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열정적인 신앙이었다. 그들은 회당이나 집에 머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드넓은 사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처럼 열정적으로 참되게 살아갔다. 수세기 동안 교회는 열정적인 신앙인들이 폭넓은 공동체에서 신앙을 실천했을 때 성장을 해왔다. 교회는 선데이 크리스천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열정적인 제자로서 살고자 하는 평신도들을 훈련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Relational-R은 관계적 특징을 말한다. 우리는 또한 교회 내에서 강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데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도행전 2장 42-47절에서 신앙생활의 관계적인 측면이 얼마나 사람들을 성도들의 친교 속으로 끌어들이는 변형적인 힘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사회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명을 주는 관계를 갈망하고 있고, 참된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힘의 깊은 감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들의 관계가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건강한 관계의 모델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다른 이를 더욱 더 깊은 관계로 이끌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필요로 한다.

Incarnational-I는 성육신적 교회를 말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구절은 요한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묘사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성육신은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온다.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 위해' 라는 구절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닌 더 깊은 임재를 제안한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원형(Temple) 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임재 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이들을 위한 예수님의 살아있는 이야기가 된다. 엄청난 내용이다. 그러나 더욱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이야기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도구가 된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교회의 미래를 거대한 희망으로 이끌게 한다.

2부 강의

Tong - Bible 랫츠 통 하십시오.

이제 통으로 성경을 읽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양과 서양이 함께 성경을 볼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5살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3형제 중 맏이인데, 제가 어릴 때, 저의 아버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꼭 암송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매주 12구절의 성경구절을 꼭 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12줄을 외우고 또 외우고 그랬습니다. 만일 이 12절의 성경을 외우지 못하면 주말에 놀 수가 없었습니다. 금요일에 부모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잘 외우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외우게 하셨습니다. 주제를 정해서 했습니다. 한 주는 천국에 관해서였고, 그 다음엔 지옥에 관한 구절을 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에 관한 12절을 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면서 많은 성경구절을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절들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들은 것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아, 그랬구나!’ 라는 증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를 얼마나 알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성경과 함께 지내왔는데,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는지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절구절로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야기로 쓰여진 것입니다. 거기에는 서신도 있고, 시도 있고, 노래도 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거기 에다 장을 붙이고 절을 붙인 것입니다. 그 것은 본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 진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 몇 가지는 알아요. 또 몇 가지 이야기들을 잘 기억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알아요. 노래로도 불러요. 삭개오 이야기를 노래를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지금 보니, 성경의 이야기들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하나의 이야기로서 배웠어야 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성경을 구절로 자르지 않고, 전체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절과 절을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밖의 세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는 새로운 방법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전체, 하나의 생명체로 보아야 합니다. 죽어 있는 글이 아니라,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 이 말씀을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는 데에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살아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있습니다. 저의 설교자로서의 사명이 이 말씀을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의 말씀은 이미 살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할 만큼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이 살아있는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말씀을 쪼개지 말고, 전체로 보는 통독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방식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야 함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방식은 바로 이 ‘통독’을 통해서 전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병호 박사님을 통해서, 통독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읽고 깨닫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병호 박사님이 노아 이야기를 어떻게 통으로 읽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조병호 박사>

“서구의 신학으로 보면 노아 홍수사건은 이원론적 해석의 대상으로, 심판의 도구로 이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으로 보면, 홍수는 단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눈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이 얼마나 아팠던지 눈이 눈물에 상하고, 간이 땅에 쏟아지고, 창자가 끊는다고 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이 병사들의 무자비한 폭력 아래 희생당하는 것을 목도하며 쏟았던 예레미야의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심판이 하나님의 슬픔이요,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라는 국지적인 심판아래 예레미야가 그토록 아파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셨다면, 온 세상이 물론 심판 받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셨을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을 통(通)으로 보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눈물이 더욱 명확하게 보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로 예루살렘을 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보인다면, 홍수라는 심판의 도구로 온 세상을 치셨던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셨을지 짐작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너드 스윗 박사>

바로 이 방법이 서구의 비판적, 비평적, 분석적 성경 읽기와 동양의 경전 읽기가 만나 찾아낸, 성경의 진리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통독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직관과 상상력으로, 여러분의 지식을 이용해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와 가슴을 모아, 성경의 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구의 방법은 머리와 가슴을 분리시켰습니다. 여행가는 길 중에서 가장 긴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입니다. 이제 머리와 가슴을 하나로 묶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렛츠 통일입니다.

2. 통 매니페스토

통통매니페스토 컨퍼런스 Tong Manifesto Conference

1.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

- 1)일시: 2010년 4월 15일
- 2)장소: 서울 장충체육관
- 3)강사: 레너드 스윗, 조병호
- 4) 강의 내용(집행부에서 제공한 책자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레너드 스윗 강의

JESUS MANIFESTO

예수 그리스도의평강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전에 계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 루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는,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골로새서를 읽을 때 2장을 읽으려면 1장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드러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비밀, 그리고 오늘 날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그 비밀은 예수님께서 희망의, 소망의 영광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신 생명으로 여러분 각자의 심령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발은 예수님의 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 안에 함께 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제 세상을 향해 외치게 될 복된 소식인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는 일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지도력 계발, 정의를 위한 일, 평화를 위한 일, 그 모든 것들이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선한 일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상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서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그를 위하여 섬기며, 그를 위해서 행하고, 이 자리에 여

러분과 제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작은 실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 사하시는지, 제가 이 꽃의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 음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제가 이 손 안에 꽃 한 송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자라는 모든 식물들은 땅에서부터 반대 방향을 향해 자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밑으로도 뿌리를 내리는데, 한편으로는 밑으로, 한편으로는 위로, 서로 반대방향을 향해 성장해 나갑니다.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것과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태양을 향해서 나무가 자라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가지와 나뭇잎은 하늘을 향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숨어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나뭇가지가 있다면 바로 땅 밑으로 깊이 내리는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튼튼하려면 튼튼한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뿌 리는 땅 속 깊이 내려가서 좋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이러한 식물과 같습니다. 이 식물이 자라듯이 우리의 영혼이 자라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식물과 같이 하늘을 향해 아름다운 자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밑으로 또 튼튼한 뿌리가 깊이깊이 뿌리를 내려 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마음을 빼기다 보면 이 땅 속으로 깊이 튼튼한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고,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통 매니페스토 컨퍼런스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서 깊이 땅 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받아 올리기 위함입니다. 그런 기초에 충실한 선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만일 우리가 이 튼튼한 뿌리를 가지지 못하면 조만간 우리의 나무는 약해지고 우리

의 가지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나뭇가지가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게 되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연약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교회는 땅 밑으로 기본을 향해서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큰 힘을 얻어야 하는 때가 온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의 이미지를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각을 갖지 못한 채 태어나고,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수화를 통해서 의사를 서로 전달합니다. 손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두 개의 수화를 배우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손가락을 같이 꺾어서 동그랗게 만드는 겁니다. 손가락을 가지고 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원을 그려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두 손가락을 연결하면 누군가와 함께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연합된 두 손가락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의 무리로서, 하나의 그룹으로서 하나 되고 연합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마치 이 두 손가락이 연결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성경으로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서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우리 모두 공동체를 이뤄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있는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조병호 박사께서는 성경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있는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함께 수화를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자, 한 가지를 더 배우시겠습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비비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정’을 말합니다. 마치 손에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열정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열정을,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단지 두 손가락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연결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그 연결이 열정을 가지고 연결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향해서 불타는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로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열정과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가 되어야 됴 믿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단 하나의 종교만 하나의 존재로, 하나의 인간으로 오신 몸으로, 그 존재를 진리로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는 가르침과 원리, 원칙을 말합니다. 기독교도 물론 가르침이 있고, 원리가 있고, 그 안에는 많은 원칙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종교와 많은 철학들이 내가 가르친 그 가르침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유교에서도 공자는 내가 말하고 내가 가르친 것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도 내가 가르친 그 가르침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내가 가르친 그 가르침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플라톤도 내가 가르친 그 가르침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마호메트도 내가 가르친 그 가르침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차이를 분명히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가르침이나 원칙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자로, 구원자로 오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원칙이나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세주이신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 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선언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 들 그 자신을 보내주신 것을 믿 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신 것을 믿 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들려 올라가면 많은 무리들을 나에게로 오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을 높이 올려 드리는 일인 줄 믿 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에서 우리가 한 발 물러서 예수님께서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그에게로 오게끔 하도록 우리는 예수 님의 뒤에 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에게로 불러 모으는 줄을 믿 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 올려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올려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스크린에 올라올 『예수 선언문』을 함께 읽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영 어로 읽게 되면 여러분이 스크린에서 보시는 대로 이 선언문을 마음의 고백으로 선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이 건국했을 때 건국의 아버지들이 함께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 었습니다. 이것은 독립선언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믿음의 선언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선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의 고백으로 이 선언문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교회를 향해서 선언해주 시기 바랍니다.

나노 매니페스토

인간사의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위해 성경의 사람들이 의미하는 것

을 깨닫고, 표현하는 것이 필 요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조상들이 그들의 시대를 위해 흔들림 없이 “현존하는 진리” 를 선포했던 것처럼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그러한 연유에서 이 선언문을 선포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과 창조주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시며, 부활하시어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사렛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셨다는 진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한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님은 우리의 심장의 열기이시며, 우리의 생각의 정수이고, 우리의 삶의 예술이십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방법, 전략, 개념, 원 칙, 교리, 프로그램, 유행, 유사품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자 경계선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솔직한 세상을 향해 다음의 내용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과 헌신의 주체이시며, 목적이고, 동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인간적으로 바꾸시어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그 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지체로서 사랑하는 신부가 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삶을 사십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이념이 아닙니다. 진리는 철학이 아닙니다. 진리는 윤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의 진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될 때 교회는 예수결핍장애(JDD: Jesus Deficit Disorder)에 걸립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발견되는 아름다움과 진리, 그리고 선에 관한 “기쁜 소식”

입니다. 생명의 신비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 우주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은 우리 각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나의 설교를 따르라.”가 아닙니다.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가 아닙니다. “나의 실천을 따르라.”가 아닙니다. 단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나와 비슷하게 되어라”는 것 이상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의 열망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나를 흉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는 “나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나를 모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심겨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나와 비슷하게 되어라”는 뜻 이상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나의 일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네 안에 네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너는 나의 자매요, 너는 나의 형제이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꿈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자서전 안에 쓰는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는 ‘신앙의 예수’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걸으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교회에 임하여 계신 분과 동일하십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WJD: What Would Jesus Do?)를 묻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그리고 언제까지나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WIJD: What Is Jesus Doing through Me...through US?)라고 물었고, 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재하시는 아버지께 의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셨듯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여 계시는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

지에 의해 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으며, 그것들에게 중요성과 현실성, 그리고 의미를 주는 중력의 당기는 힘(the gravitational pull)이심을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모든 것은 가치를 상실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삶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단절된 삶에서 우리 자신을 찾는 힘 없는 노력과 순전한 선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선언합니다. 오직 메시아 안에서 매개자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메시아적 유일성을 놓치는 것은 요점과 계획을 놓치는 것이며, 이는 곧 삶의 의미를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 덕목, 진리, 또는 은사와 같은 ‘것들’을 주시지 않으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영적 가치, 덕목, 진리, 그리고 은사의 구현자가 되시는 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와 지혜와 평화, 능력, 은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의 성육신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원인자 이상이심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시며, 평화의 왕이시고, 영원한 신성의 제 2위이십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나의 핵심 가치다.”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의미한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새로운 주인이신 메시아이시며, 영원한 신성의 육체적 구현이자 성취”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메시아를 따라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영감의 책임을 선언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살아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입니다. 성경은 하늘에 있는 복극성과 남쪽의 십자가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임을 선언합니다. 교회는 이 땅

에 존재하는 바로 예수 님 자신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과 권위, 생명을 부여해주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 알려집니다. 하나님은 손을 갖고 계시지 않지만 우리의 손을 가지고 계시며, 다리를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 우리의 다리를 갖고 계십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일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하고 계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의 삶이 개인적인 추구가 되어서는 안 됨을 선언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리는 것은 개인적 탐구가 아닙니다. 삶을 독자적으로 살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넘어져 멸망할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묻는 세상에서 “오 사랑의 주님” 이라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예수님을 닮으려 하네.” 라고 노래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감동케 하는 내가 아는 위대한 것을 당신께 아뢰입니다. 얼마나 큰 상급을 내가 받을까요? 누구의 이름 안에서 내가 영광을 돌리나йк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기쁘게 하고 감동케 하는 내가 아는 위대한 것을 당신께 아뢰입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일어나 승리하셨습니다.

이 선언문을 위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확고히 의지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우리의 삶과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의 열정과 사명, 그리고 생명조차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서약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손가락을 모아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속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살

아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입니다. 예수님께 저는 자신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 나가도록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통해 살도록,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3. Let' s Tong Scriptura

1)일시:2014년 1월 13일~17일

2)장소:서울 한강호텔

3)강사: 레너드 스윗, 조병호

4) 아래는 이병왕, 당당뉴스 칼럼, 2014년 1월 18일 <http://www.dangdangnews.com>의 내용을 전재한 것이다.

레너드 스윗 “기독교, ‘내리포’ 로 소통하라” 세 번째 방한.. 2014년 1월13일부터 17일까지 ‘레즈통 스크립투라’ 세미나 인도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있는 개신교의 미래는 ‘구텐베르그(인쇄) 문화’의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구글(디지털) 문화’의 소통 방식을 채택 여부에 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미래신학자 레너드 스윗에 의해서다.

● ‘구텐베르그’의 시대에서 ‘구글’의 시대로

레너드 스윗 박사는 기독교(개신교)의 미래는 세상과의 소통 방식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구텐베르그의 인쇄(책)술 발명에 힘입어 태어나 발전한 기독교가 구글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대에 과연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임무는 바로 그가 속한 문화의 언어를 익혀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라면서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속한 선교사로서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에 맞게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 동안 구텐베르크의 인쇄 혁명의 영향을 받은 문자 문명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혹은 ‘글’(word)을 신뢰하도록 훈련받았다”면서 “하지만 이제 우리는 글을 벗어나 성경의 이야기와 은유를 신뢰하는 방법을 배울 때”라고 밝혔다.

● 이 시대의 언어 ‘내러포(Narraphor)’

레너드 스윗에 따르면 이 시대 문화의 언어는 글(Word)이 아닌 이야기(Narratives)와 은유(Metaphors)다. 이 둘을 합쳐서 ‘내러포(Narraphor)’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화가 오늘날 소통하는 방식이다. 그는 “오늘날 모든 사람이 평균적으로 노출되는 상업광고의 수는 하루에만 3000개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 중 성공적이라고 평가 받는 광고일수록 그 안에는 단어나 글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시대의 언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날 기업들은 자신들이 파는 제품을 통해 알려지기보다는 제품을 둘러싼 ‘은유’와 ‘이야기’를 통해 평가를 받고자 한다”며 따라서 광고 속에 등장하

는 것은 직접적인 제품이 아닌 그것을 둘러싼 상징과 이야기 곧 내러포(Narraphor) “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는 그동안 이 시대의, 이 문화의 언어를 배우기를 강하게 거부해 왔다” 면서 “이제는 우리가 속한 이 시대와 문화의 소통방식인 ‘내러포’ 를 통해 성경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깨우치고 실천해야 할 때” 라고 주장했다.

- 구글 시대 문화에 적합한 성경 해석 방법 ‘성서 기호학’

그는 이에 ‘성서 기호학’ (Semiotics)을 지금 이 시대의 문화에 적합한 성경 해석 방법이자 소통의 도구로 소개했다. 그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할 우리의 사명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인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이상 문자 속에 갇혀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 그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 문화의 언어인 은유와 이야기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모든 사람들과 다음 세대가 그들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첫사랑이 회복돼 인간 본래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레너드 스윗 박사는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은유와 이미지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서 기호학은 지금 이시대의 문화에 적합한 성경 해석 방법이자 소통의 도구” 라고 주장했다.

참고 문헌

외국어서적

Sweet, Leonard. *Giving Blood: A Fresh Paradigm for Preaching*.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4.

Sweet, Leonard & Viola, Frank. *Jesus: A Theography*. Nashville TN: Thomas Nelson, 2012.

Sweet, Leonard. *The Gospel According to Starbucks*. Colorado CO: Waterbrook Press, 2007.

번역서적

Lowry, Eugene. *이야기식 설교구성*. 이연길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7.

Marsden, George M. *조나단 에드워드 평전*. 한동수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6.

Robinson, Haddon & Craig Brain Larson. *성경적인 설교 준비와 전달*. 전의우 외 5인 역. 서울: 두란노, 2006.

Sweet, Leonard.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4.

Wiersbe, Warren W. *상상이 담긴 설교*. 이장우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8.

한국어서적

김근수. *세상의 고통을 없애는 저항의 길: 슬픈 예수*. 서울: 21세기 북스, 2013.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김운용. *현대설교코칭*.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2.

김서택. *강해설교와 목회*. 서울: 홍성사, 2002.

김진규. *히브리 시인에게 설교를 배우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헌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3.

문성모. *한국교회 설교자 33인에게 배우는 설교*. 서울: 두란노서원, 2012.

- 신성욱. *목사님, 설교 최고예요!*.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1.
- 이연길. *이야기 설교학*. 서울: 쿼란출판사, 2013.
- 장두만. *청중이 귀를 기울이는 설교*. 서울: 요단출판사, 2009.
- 정인교. *설교학 총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조병호. *그 순간*. 서울: 통독원, 2015.
- 조병호.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서울: 통독원, 2012.
-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8.
-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서울: 통독원, 2011.
- 조병호. *성경과 고대전쟁*. 서울: 통독원, 2011.
- 조병호. *성경과 고대정치*. 서울: 통독원, 2011.
-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2.
- 조병호. *신구약중간사*. 서울: 통독원, 2012.
-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스쿨*. 서울: 통독원, 2012.
- 조병호.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 서울: 통독원, 2014.
-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3.
- 조병호. *통성경지도자 포플라 지도자 노트*. 서울: 통독원, 2014.
- 한중수. *네러티브 설교의 힘*. 윌리엄 캐리, 2010.

논문, 잡지

-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성경교수방법으로서의 내러포 탐구.” 84, *신학과 세계*, 2015, 526-554.

Website.

<http://www.chickensoup.com/about/history>

<http://www.chickensoup.com/about/facts-and-figures>

중앙일보, 조인스 블로그, <http://blog.joins.com>

당당뉴스 칼럼, <http://www.dangdangnews.com>

성경통독원 홈페이지, <http://tongdok.net> 성경통독, 성경통독이란?

몸학기독교연구소 <http://freeview.org>

뉴스미션 <http://www.newsmission.com>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네이버 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

V I T A

PERSONAL DATAFull Name: Byungjae MoonPlace and Date of Birth: Kyungbuk, South Korea, Sep.14, 1962Parent's Names: Kidong Moon and Keumbum Kim**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Gimcheon High School 90, Songseolno, Gimcheon-si, Gyeongsangbuk-do, South Korea	Diploma	Feb. 10, 1981
Collegiat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y Seminary 25-1 GwangJangno 5-gil, GwangJin-gu, Seoul, South Korea	B.TH	Feb. 19, 1987
Graduat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y Seminary 25-1 GwangJangno 5-gil, GwangJin-gu, Seoul, South Korea	M.Div	Feb. 22, 1990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Byungjae Moon

Name typed

May 6, 2016

Date